

# 미국 정보통신 현황

## 목 차

### I. 정보통신 현황

1. 정보통신 주관부처
2. 정보통신 정책
3. 주요 정보화 지표

### II. 통신 산업 현황

1. 개요
2. 부문별 현황
3. 주요 통신 사업자

### III. IT 산업 현황

1. 개요
2. IT 시장 현황 및 전망
3. 주요 업체 현황

### IV. IT 분야 협력 현황

1. IT 교역 현황
2. 한-미 IT 협력 현황

### V. 전자정부 구축 현황

1. 개요
2. 추진 방법
3. 서비스 현황

### VI. 정보통신 동향

### VII. 일반 현황

1. 국가 개요
2. 경제 지표
3. 양국 간 협력 관계

# I. 정보통신 현황

1

정보통신 주관부처

## □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 제 1조에 근거하여 설립됨
- 통신 및 방송사업 전반의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규제기관으로 전파, 텔레비전, 무선통신, 위성통신과 케이블을 통한 주나 나라들 간의 통신을 규제하는 책임을 가짐
- 1996년의 통신법령과 통신과 방송과 전파범위를 포괄하는 다른 연방 법령을 수행함
- 웹사이트 : [www.fcc.gov](http://www.fcc.gov)

## □ 국가정보통신국 (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Association)

- 연방정부의 주파수 관리를 담당하는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기관
- 국내외 통신과 정보에 관한 업무와 항공관제 및 국가안보 등 연방정부와 밀접한 통신업무를 수행
- 웹사이트 : [www.ntia.doc.gov](http://www.ntia.doc.gov)

### □ 정보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1996)

- 1996년 2월 8일 만들어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더디던 연방, 주, 지역의 법들과 규제가 얽혀져있던 것을 대신함
- 독점보호 통신정책이 FCC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이 법령을 통해 국회는 미국의 제일의 정보통신정책을 새롭게 주장했고, 통신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함
- 정보통신법을 제정한 국회의 주요 목적 3가지
  - 지역적인 교환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들에서 경쟁을 향상
  - 진보된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발전
  - 보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합리화와 고양

### □ 정보화 현황

- 미국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의 '정보고속도로 (Information Super Highway)' 계획과 IT 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찍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 중 하나임

- 2001년 시작된 부시 행정부에서도 클린턴 정부의 정보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차원의 정보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초고속인터넷 확장, 전자정부 구축 등 범국가 차원의 정보화 노력을 기울여 옴
- 그 결과 현재까지도 여전히 정보화 선진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주요 정보통신 지표(2006)]

구 분	단위: 천	보급률(%)
유선전화 회선 수	168,368	56.5
이동통신 가입자 수	233,041	77.8
인터넷 이용자 수	202,310	67.8
광대역 가입자 수	57,491	19.3

(자료 : BMI, 2007. 3/4)

[미국 정보화 수준]

구분	조사기관	순위	대상국가 수	최근발표일
전자정부준비지수	UN	1	191	2005.12.
e-비즈니스 준비도	EIU	2	69	2007.4.
정보사회지수	IDC	3	53	2004.11.
네트워크준비지수	WEF	7	122	2007.3.
디지털기회지수	ITU	20	181	2007.5.

※ 주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WEF(WorldEconomic Forum),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자료 :

1. 전자정부준비지수: UN, '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5', 2005.12.
2. e-비즈니스 준비도: EIU, 'The 2007 e-readiness Rankings', 2007. 4.
3. 정보사회지수: IDC, 'Information Society Index 2004: Rankings and Data', 2004. 11.

4. 네트워크준비지수: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6~2007', 2007. 3.
5. 디지털기회지수: ITU, 'World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07', 2007. 5.

## II. 통신 산업 현황

1

개요

### □ 개요

- 미국의 통신 시장 규제완화는 1984년 당시 세계 최대 사업자였던 AT&T가 장거리 전화 사업자 AT&T와 7개 지역 사업자(RBOC: Regional Bell Operating Company), 소위 Baby Bell로 분리되면서 시작됨
- 이후 장거리 및 지역전화 사업자와 케이블 TV의 다각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1996년 통신법이 제정되어 통신 시장에 완전한 경쟁체제가 도입됨
-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규제완화 조치를 계기로 1990년대 미국의 통신 시장에는 기술 개발, 시장 점유율 유지, 신규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급물살을 이룸. 그러나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IT 산업의 거품이 붕괴될 때 그 한 중심에서 큰 타격을 받기로 함

- 현재 미국의 통신 산업은 과잉 공급과 기대 이하의 성장률로 인한 치열한 경쟁, 광범위한 구조 및 규제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례없는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무선 서비스 사용의 증가, 케이블 TV 사업자들과의 경쟁, 특히 Vonage와 Skype를 필두로 하는 VoIP 사업자들의 선전은 전통적인 유선 기반의 지역 전화 서비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대규모 통신사업자들이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실정임
  
- 1984년 사업자 수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AT&T가 여러 회사로 분리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통신 산업에는 사업자 간의 합병 추세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심지어 AT&T 조차 최초 사업자 분리 시 지역 사업자인 7개 Baby Bell 중 하나였던 SBC에 인수된 상태임. 단, AT&T라는 이름은 유지하고 있음
  
- 최근 유선전화와 광대역 시장에서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AT&T를 비롯한 기존 유선통신 사업자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음
  
-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AT&T Mobility(기존 Cingular Wireless), Verizon Wireless, Sprint PCS, T-Mobile이 차례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새로운 서비스로 모바일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3대 사업자는 모두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유선통신

1) 시장 개관

- 1984년까지 AT&T에 의해 시장이 독점되다 22개의 Bell 사업자로 구성된 7개 지역 전화 사업자(RBOC: Regional Bell Operating Company)로 지역 전화 부문이 분리됨
- 그러나 사업자간의 통합이 계속되어 현재 Verizon Communications, BellSouth, Qwest Communications, SBC Communications 등 4개의 RBOC만 남았다가, 2006년 12월 FCC가 AT&T와 BellSouth 간의 합병을 승인하여 그 수는 다시 3개로 감소
- 1948년에는 지상파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 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케이블 TV가 도입됨. 현재 7,900여개의 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케이블 시장은 1972년 자유화된 상태임
- 최근 DirecTV와 EchoStar라는 2개의 direct-to-home(DTH) 위성 사업자가 케이블이 주도하고 있던 유료 TV 시장에서 위협적인 경쟁 상대로 등장하였음
- RBOC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유선 서비스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그리고 케이블 사업자는 이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기 위해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RBOC는 해당 지역에서는 차세대 양방향 TV와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섬유 기술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DTH 사업자와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음

## 2)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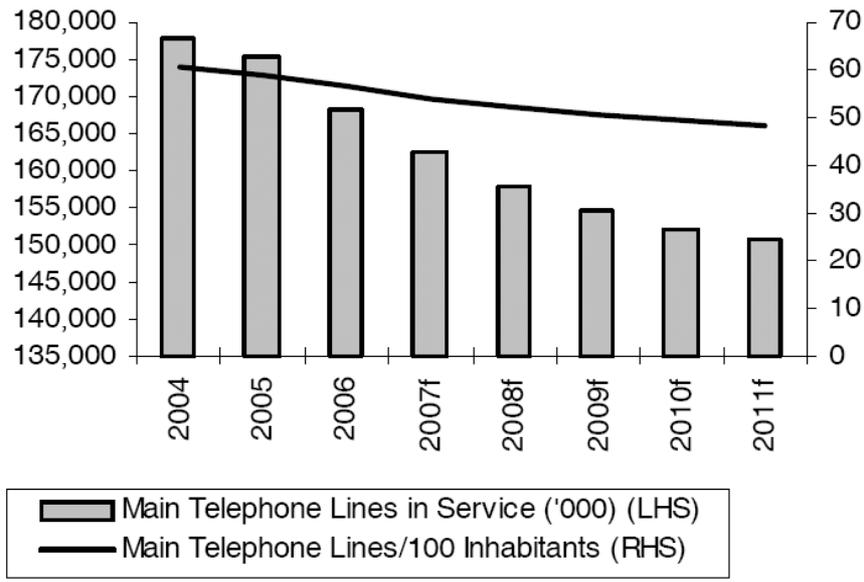
- 최근 5년 동안 유선통신 보급률은 계속 감소해 왔으며 2006년 3/4분기에는 2006년 평균인 4%보다 높은 4.9%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보였음
- 그러나 2007년 3.5%에 이어 2008년 3%로 감소 속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이것은 유럽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인데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케이블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 RBOC들이 차세대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 쿼드러플 플레이 서비스 개시
  -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발달 속도 지체

### [ 유선통신 회선 보급 현황 및 전망 ]

(단위 : 천회선, %)

	2004	2005	2006	2007f	2008f	2009f	2010f	2011f
회선 수	177,827	175,350	168,368	162,475	157,926	154,609	152,136	150,614
보급률	60.5	59.1	56.5	54.0	52.0	50.5	49.2	48.3

(자료 : BMI, 2007. 3/4)



(자료 : BMI, 2007. 3/4)

### 3) 사업자 경쟁 현황

- 지역 사업자 RBOC의 유선 가입자 기반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반면 CLEC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ILEC(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 : 1996년의 미국의 연방 통신법이 제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던 기존 시내전화 서비스 회사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RBOC라고 하는 지주회사로 통합된 이전의 벨 운영회사들을 포함
  - CLEC(Competitive Local Exchange Carrier): 1996년 연방통신법 제정 이후 ILEC와의 경쟁에 뛰어들어 사업자

- 2006년 12월 29일 AT&T가 Bell South를 인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중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게 됨

[ 시내전화 시장 현황(2006) ]

(단위: 백만, %)

사업자	가입자 수	점유율
AT&T*	66.469	39.5
Verizon	45.079	26.8
Qwest	13.800	8.2
Embarq (기존 Sprint Nextel)	6.908	4.1
Windstream (기존 ALLTEL)	3.240	1.9
CenturyTel	2.094	1.2
Citizens	2.127	1.3
기타	28.651	17.0
<b>계</b>	<b>168.368</b>	<b>100</b>

\* AT&T 가입자는 Bell South 포함

(자료 : BMI, 2007. 3/4)

- 유선통신 시장에서는 다른 대체 사업자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케이블 사업자로의 이동이 두드러짐
  - 이에 대응하기 위해 ILEC는 DTH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DTH 번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일부는 가정에 직접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섬유 기술을 구축하여 케이블 사업자들의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에 맞서고 있음
  - Verizon의 경우 2010년 이내 1,800만 가구를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2006년 말 현재 Verizon의 광섬유 네트워크는 600만 가구를 커버함

- 일부 사업자들은 유선 서비스 부문을 분사하고 수익성이 더 높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으로 눈을 돌리기도 함
  - Sprint Nextel은 2006년 5월 유선 비즈니스를 Embarq Corporation에 매각
  - Alltel은 유선 사업을 분사하여 Valor Communications와의 합병을 통해 2006년 7월 Windstream 설립
- 한편 케이블 사업자들이 전화와 광대역 시장에까지 영역을 넓혀가자 유선 사업자 뿐 아니라 다른 시장에까지 그 파급 효과가 미치고 있음
  - 인터넷 전화(VoIP) 사업자인 Vonage는 지난해 4/4분기 가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케이블 사업자의 공격적인 인터넷 전화 서비스 마케팅이 그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케이블 TV 가입자들은 대부분 명목상의 수수료만 내면 시청이 가능한 기본 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으나 점차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됨
  - 예를 들면 Comcast의 경우 2006년 동안 190만 명의 디지털 가입자를 새로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수치
  - 시장 전체로 살펴보면 디지털 TV 서비스는 전체 케이블 TV 고객 기반의 40%를 훨씬 웃돌고 있음

[ 유료 TV 시장 현황(2006) ]

(단위: 백만, %)

사업자	가입자 수	점유율	디지털 가입자	디지털 가입자 비중
Comcast	24.200	25.6	12.700	52.5
DirecTV	15.950	16.8	na	na
EchoStar	13.105	13.8	na	na
Time Warner	13.402	14.2	7.270	54.3
Cox Communications	5.950	6.3	2.916	49.0
Charter Communications	5.433	5.7	2.808	51.7
Cablevision	3.127	3.3	2.447	78.3
기타	13.544	14.3	na	na
계	94.711	100	na	na

(자료 : BMI, 2007. 3/4)

□ 무선통신

1) 시장 개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미국은 2006년 현재 이동통신 보급률이 78%로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
  - 유선전화 사용률이 높음
  -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이 높음
  - 유럽이 GSM이라는 표준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하나의 표준을 정하기 않아 시장이 분화되어 있고 지역 네트워크가 호환되지 않음
-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AT&T Mobility(기존 Cingular Wireless)가 최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Verizon Wireless(Verizon

Communications와 Vodafone Group의 합작 회사), Sprint PCS (Sprint Corporation의 무선 사업부), T-Mobile 등 4개 사업자가 85%의 시장을 점하고 있음

- 나머지 이동통신 시장은 매우 세분화되어 가입자 수가 대체로 350만 이하인 여러 지역 사업자가 존재함
  - 이들 중에서 상당한 시장을 점하고 있는 지역 사업자로는 1,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Alltel과 600만 명을 보유한 US Cellular가 있음
- 또한 이동통신 시장에는 선불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다수의 MVNO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주요 MVNO에는 멕시코의 América Móvil이 소유하고 있는 TracFone, Virgin Mobile USA, Boost Mobile, Qwest Wireless 등이 있음

## 2) 시장 규모

- 이동통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으나 미국 경기 둔화와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2006년과 같은 10% 이상의 성장률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0년 이내 100%의 보급률에 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2011년 1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동통신 보급률이 낮고 성장 속도도 빠르지는 않지만, 미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후불 서비스 가입자 비중이 90%에 육박한다는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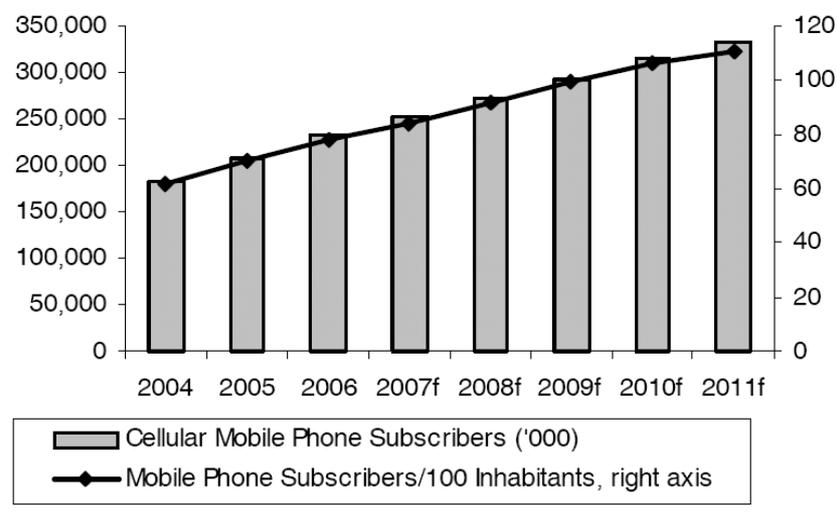
## 장은 주목할만함

-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선불 가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선불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MVNO들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음
- o 향후 사업자들이 WiMAX를 비롯한 신기술로 네트워크 커버리지와 품질 향상에 나서고 3G와 4G 서비스를 포함한 차세대 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 이동통신 가입자 수 보급 현황 및 전망 ]

구분	2004	2005	2006	2007f	2008f	2009f	2010f	2011f
이동통신 가입자 수 (단위: 천 명)	182,140	207,896	233,041	252,616	272,826	293,288	313,818	332,647
이동통신 보급률 (%)	62.0	70.0	77.8	84.0	91.5	99.1	106.7	110.6
이동통신/유선통신 (%)	102.4	118.6	138.4	155.5	175.9	196.4	216.7	228.8

(자료: BMI, 2007.3/4분기)



(자료: BMI, 2007. 3/4분기)

○ 특히, 미국에서는 모바일 게임의 이용이 급성장하고 있음

- 2006년 4/4분기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모바일 포털을 통해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 수는 1,7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 매출규모는 61%나 증가한 1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함

Table 5. 미국 모바일 게임 이용자 수 및 매출 규모 추이

구분	2005.4Q	2006.1Q	2006.2Q	2006.3Q	2006.4Q	성장률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이용자 수 (백만 명)	12.0	12.8	13.5	15.7	17.4	45%
모바일 게임 매출(백만 달러)	94	134	141	140	151	61%

\* 주 : 성장률은 2005년 4/4분기 대비 2006년 4/4분기 성장률

자료: Telephia Mobile Game Report(2007.3)

### 3) 사업자 경쟁 현황

- AT&T Mobility, Verizon, Sprint Nextel 등 3대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6개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무려 92.8%를 점하고 있음
  - 나머지 시장은 수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음. 이들은 대개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50만 이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
- 이동통신 시장의 세분화 현상은 지속되어도 향후 몇 달 동안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 간의 통합이 증가하여 전체 사업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모바일 사업자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

사업자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AT&T Mobility	63.673	26.3
Verizon Wireless	62.054	25.6
Sprint Nextel	54.015	22.3
T-Mobile	26.877	11.1
Alltel Wireless	12.242	5.1
US Cellular	6.010	2.5
기타	17.334	7.1
계	<b>242.205</b>	<b>100.0</b>

\* MVNO의 가입자 수도 각 네트워크 운영자의 가입자 수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BMI, 2007. 3/4분기)

- 2005년 Sprint가 Nextel을 인수한 후 2위 자리로 올라오긴 하였으나 Verizon은 빠른 속도로 Sprint Nextel을 따라잡았고 현재 1위 사업자인 AT&T Mobility와의 격차도 점차 좁히고 있음
- 반면 Sprint Nextel은 기존 Nextel 네트워크의 서비스 품질이 열악하여 수익성이 높은 후불 가입자에서 점차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가입자 수]

(단위: 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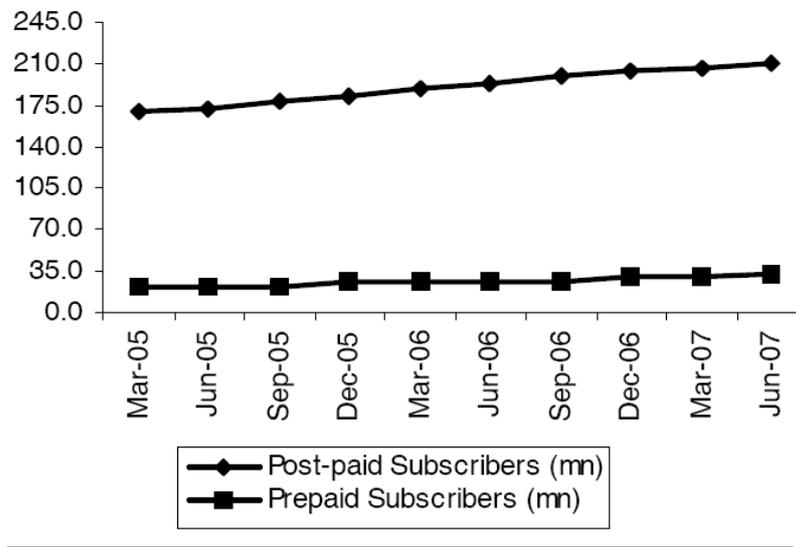
사업자	2007.2/4		2007.1/4		2006	
	신규 가입자	신규가입자 점유율	신규 가입자	신규가입자 점유율	신규 가입자	신규가입자 점유율
AT&T Mobility	1,456	34.0	1,255	25.7	2,296	30.6
Verizon Wireless	1,338	31.2	1,664	34.1	2,305	30.7
T-Mobile	857	20.0	979	20.1	902	12.0
Sprint Nextel	373	8.7	568	11.7	1,177	15.7
Alltel Wireless	181	4.2	237	4.9	662	8.8
US Cellular	37	0.9	158	3.2	086	1.1
기타	45	1.0	16	0.3	70	1.0
계	<b>4,287</b>	<b>100.0</b>	<b>4,877</b>	<b>100.0</b>	<b>7,498</b>	<b>100.0</b>

(자료: BMI, 2007. 3/4분기)

- 한편 MVNO들도 최근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 선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최대 MVNO인 TracFone는 2007년 6월 말 가입자가 857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22% 가입자가 증가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자 중 가장 빠른 가입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TracFone은 AT&T, Verizon, Sprint, T-Mobile은 물론 Alltel, US Cellular 등 소규모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서비스 제공 중임

- MVNO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선불 서비스가 종전에 비해 대중화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함. 실제로 2005년 말 11% 수준에 불과하던 미국 이동통신 시장의 선불 가입자 비중이 13%로 증가하는 등 일부 사용자 집단에서 선불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음

[선불과 후불 가입자 추이]



(자료: BMI, 2007. 3/4분기)

#### 4) 3G

- 미국에서는 3G 면허 경매가 오랫동안 지연되어 오다가 2003년 10월, 2,110-2,155 MHz 대역의 사용을 허가하는 FCC Report and Order가 발표됨으로써 3G 사업권 허가 과정의 포문이 열림
- Verizon이 2005년 2월 미국 최초로 3G 서비스를 상용화하였고, 이후 2005년 Sprint Nextel과 Cingular가 차례로 서비스를 시작함
- 상위 4개 사업자 중 유일하게 3G 주파수를 보유하지 못했던

T-Mobile은 2006년 9월 있었던 AWS 경매에서 132개의 AWS 면허 중 120개의 면허를 420억 달러에 획득함. T-Mobile의 3G 네트워크는 2007년 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

-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에 비해 3G로의 마이그레이션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모바일 커머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기술의 향방을 가늠하기도 어려움
- 그러나 Wi-Fi와 유사한 전송 속도를 제공하면서 운영 반경은 더 넓은 진보된 무선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 인터넷

### 1) 시장 개관

- 미국은 2006년 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 2억, 보급률 68%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1990년대 인터넷이 처음 대중에게 소개된 이후로 미국은 발전 수준이나 사용면에서 줄곧 선두를 달려옴
  - 1990년대 후반 클린턴 정부는 National Infrastructure Initiative인 정보통신법으로 인터넷의 상업화를 후원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와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의 후원함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광대역 보급률은 낮은 편이지만 2006년 말

20%에 도달함

- Comcast, Time Warner, Cox Communications 등 케이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과 RBOC/CLEC가 제공하는 ADSL 서비스 가입이 증가하면서 광대역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음
- 2005년 현재 818개의 ADSL 사업자, 240개 케이블 모뎀 제공업자, 위성, 고정무선, 모바일 와이어리스 및 전력선 이용 서비스 제공업자 831개 등, 1,300개가 넘는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 시장 규모

- o 인터넷 이용 보급률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1년 7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o 광대역은 초고속 인터넷과 IPTV, VoIP같은 무선을 대체하는 경쟁적인 상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o 광대역 가입자 수는 2006년 전반기 5,900만이 증가한 데 비해 하반기에는 5,750만 명이 증가하여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하였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광대역 시장의 확장을 계속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
- 통신 시장의 통합이 계속 늘어나 쿼드러플 플레이 서비스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됨
  - 2006년 11월 FCC가 전력선을 통한 광대역(BPL: Broadband over Power Line)을 다른 광대역 서비스와 동일하게 간주하기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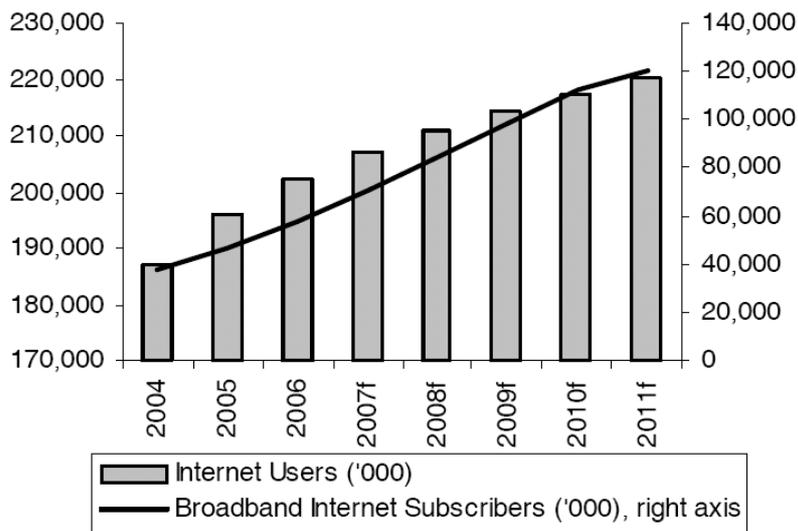
함에 따라, BPL 시장의 성장과 광대역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임

- 뉴저지 주의 전례를 따라 비디오 프랜차이즈 획득 절차를 간소화 하여 광대역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주들이 속속 증가하고 있음(2006년 미시건 주가 비디오 프랜차이즈 개혁법을 발효한 것을 포함 현재까지 11개 주가 이러한 추세에 합류)

[ 인터넷 이용 현황 및 전망 ]

	2004	2005	2006	2007f	2008f	2009f	2010f	2011f
인터넷 이용자 수 (단위: 천 명)	187,016	195,890	202,310	207,110	210,860	214,080	217,110	220,367
인터넷 보급률 (%)	63.6	66.0	67.8	68.8	69.5	69.9	70.3	70.8
광대역 가입자 수 (단위: 천 명)	37,891	47,111	57,491	70,451	84,851	98,601	112,551	120,541
광대역 보급률 (%)	12.90	15.87	19.3	23.4	27.9	32.2	36.4	38.7

(자료: BMI, 2007. 3/4분기)



(자료: BMI, 2007. 3/4분기)

### 3) 사업자 경쟁 현황

- 2006년 광대역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케이블 사업자와 유선통신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것임
- Comcast가 지난해 3/4분기까지는 시장 리더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2006년 말 AT&T가 Bell South와 합병하면서 근소한 차로 Comcast를 누르고 광대역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 발돋움
- AT&T는 2006년 말 현재 1,217만 명의 광대역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216만 1,000명이 ADSL 이용자로 나타남

[ 광대역 시장 점유율 현황(20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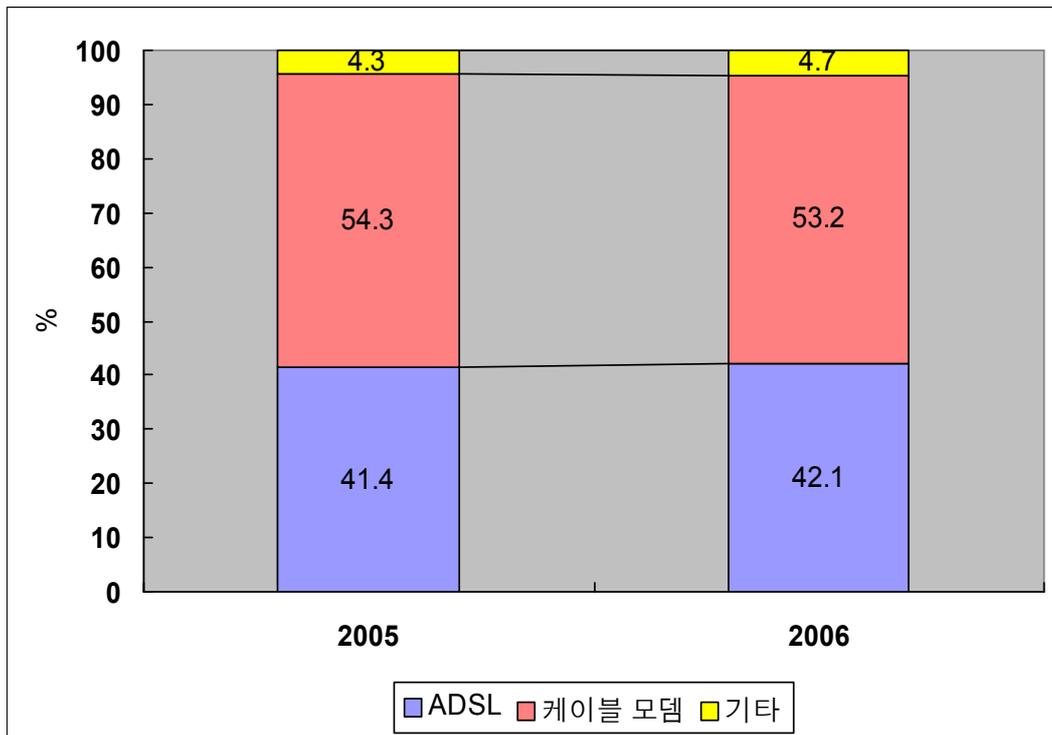
(단위: 1,000, %)

사업자	가입자 수	점유율
AT&T*	12.170	21.2
Comcast	11.500	20.0
Verizon	6.982	12.1
Time Warner	6.889	12.0
Cox Communications (e)	3.300	5.7
Charter Communications	2.402	4.2
Cablevision	2.039	3.6
Qwest	2.140	3.7
기타	10.069	17.5
계	<b>57.491</b>	<b>100</b>

\*AT&T는 Bell South 가입자 포함  
(자료: BMI, 2007. 3/4분기)

-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미국은 ADSL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기술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나, 2006년에는 ADSL의 비중이 다소 증가함
- 광대역 기술은 대부분 ADSL과 케이블 모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밖에 SDSL, 전통적인 유선, 광섬유, 위성, 고정 무선 및 전력선 등이 있음
- 2006년 11월 FCC는 전력선을 이용한 광대역을 DSL과 케이블 모뎀과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에게 저렴한 이용료와 다양한 선택권이라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광대역 기술 점유율 ]



(자료: BMI, 2007. 3/4분기)

## o 광대역 기술 종류

### ① Broadband over Powerline

- 미국정부와 FCC의 지원에 힘입어 국제표준개발을 진행함에 따라 주요 기기공급자들은 시장에 진입하였음
- 기술적으로 BPL케이블이 미분리 및 예상할 수 없는 반응속도의 한계의 문제로 BPL의 발전여부는 지켜봐야 함

### ② Cable modem and DSL

- 브로드밴드의 많은 가입자들이 아직도 케이블모뎀을 유지하고 있으며, DSL이 그 뒤를 연 2배의 증가율로 뒤쫓고 있음
- 2008년 상반기면 DSL이 케이블모뎀을 능가할 것이라 예상됨
- Comcast와 Time Warner가 케이블 브로드밴드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AT&T와 Verizon, BellSouth, Qwest가 DSL부문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③ Fibre to the Home(FttH)

- 브로드밴드 발전에도 불구하고 2006년 단지 67만 명이 가입함
- 초고속 브로드밴드와 IPTV같은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 대한 요구와 FttP 설치비용의 감소에 있어서의 미국규제 변화는 미국 FttP의 전망을 향상시킴

### ④ Wireless Broadband (이 보고서에는 유선 부문에 포함)

- Wireless Broadband는 WiFi, WiMAX,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s, 위성 DTH까지 포함함
- WiFi Outlet은 공공장소나 사무실, 집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WiFi서비스는 주요 도시에서 빠르게 증가함
- 모바일 WiMAX 표준은 2005년 12월 승인되어 빠르게 개발되었으며

더 큰 대역폭에 대한 고객요구와 기술향상으로 인해 Wireless Broadband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되고 있음

- 2006년 8월 Sprint Nextel은 광범위한 4G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1억만 명에게 도달 가능한 모바일 WiMAX를 배치 의도를 밝힘

o 인터넷 이용자들의 검색 엔진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검색엔진 순위 (2006) ]

검색엔진	검색자수(백만)	점유율(%)	성장률(%)
구글	2671.048	49.4	31
야후	1243.621	23.0	29
MSN	555.638	10.3	3
AOL	371.446	6.9	4
Ask.com	125.588	2.3	66
마이웨이	118.864	2.2	51
넷츠케이프	25.815	0.5	-36
Dogpile.com	24.884	0.5	-29
iwon	24.759	0.5	-42
Earthlink	24.335	0.4	-28

Source : Paul Budde

## □ 음성 패킷망(VoIP)

- o 2005년 VoIP는 케이블TV업체로 인해 전화통신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함
- o 2006년 가입자를 1억만 명을 가진 세계 최대의 음성패킷망 Skype는 eBay에게 인수된 후 미국 VoIP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굳힘
- o 마이크로 소프트나 구글, 야후, AOL도 VoIP시장에 진입함. 그러므로 통신시장에서 VoIP는 가장 경쟁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됨.

주요 수입과 고객손실의 위협을 느낀 주요 통신사들은 광 네트워크 투자를 선택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틈새시장을 노리는 VoIP 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발전하는 인터넷경제상에서 다양화시키지 않는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임

3

주요 통신 사업자

□ 개요

사업자	시장
Verizon Commun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전화(지역, 장거리, 국제)</li> <li>- 데이터</li> <li>- 인터넷</li> <li>- 모바일(Verizon Wireless 지분 55% 보유)</li> </ul>
A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전화(지역, 장거리, 국제)</li> <li>- 데이터</li> <li>- 인터넷</li> <li>- 모바일(자회사 Cingular Wireless, 현 AT&amp;T Mobility)</li> </ul> <p>(2005년 11월 SBC에 인수, 2006년 12월 BellSouth와 합병)</p>
Qw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전화(지역, 장거리, 국제)</li> <li>- 데이터</li> <li>- 인터넷</li> <li>- 모바일(MVNO)</li> </ul>
Windstream Commun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전화(지역, 장거리, 국제)</li> <li>- 데이터</li> <li>- 인터넷</li> </ul> <p>(2006년 7월 ALLTEL 유선 자산의 분사와 VALOR과의 합병으로 탄생)</p>

Citizens Commun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전화(지역, 장거리, 국제)</li> <li>- 데이터</li> <li>- 인터넷</li> </ul>
Century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전화(지역, 장거리, 국제)</li> <li>- 데이터</li> <li>- 인터넷</li> </ul>
AT&T Mo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AT&amp;T가 100% 지분 보유)</li> </ul>
Verizon Wirel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Verizon Communications 지분 55%, Vodafone 45% 보유)</li> </ul>
T-Mobile U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T-Mobile International 지분 100%)</li> </ul>
Sprint Nex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li> <li>- 모바일</li> </ul>
US Cellul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Telephone and Data Systems 지분 82% 보유)</li> </ul>
Alltel Wirel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li> <li>- 인터넷</li> </ul>
Comca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날로그 및 디지털 케이블 TV</li> <li>- 데이터</li> <li>- 인터넷</li> <li>- 전화</li> <li>- 콘텐츠</li> <li>- 방송</li> </ul> <p>(2006년 7월 Adelphia 자산 인수)</p>
Time War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날로그 및 디지털 케이블 TV</li> <li>- 데이터</li> <li>- 인터넷</li> <li>- 방송</li> <li>- 출판</li> </ul> <p>(2006년 7월 Adelphia 자산 인수)</p>
Cox Commun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날로그 및 디지털 케이블 TV</li> <li>- 데이터</li> <li>- 인터넷</li> <li>- 전화</li> </ul>
Charter Commun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날로그 및 디지털 케이블 TV</li> <li>- 데이터</li> <li>- 인터넷</li> <li>- 전화</li> </ul>

Cablevision Systems	- 아날로그 및 디지털 케이블 TV - 데이터 - 인터넷 - 전화 - 엔터테인먼트 - 프로그래밍
DirecTV Holdings	- DTH 유료 TV(DirecTV Group 100% 지분 보유, 이 회사는 News Corp이 34% 지분 보유)
EchoStar Communications	- DTH 유료 TV
Embarq Corporation	- 유선 전화(지역, 장거리, 국제) - 데이터 - 인터넷 - MVNO (2006년 5월 Sprint Nextel 분사로 설립)
Virgin USA	- 모바일(MVNO)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사업자들은 상장기업

## □ 주요 통신사업자

### 1) AT&T

- 독점 유선통신 사업자였다가 1984년 법원의 사업자 분할 명령에 의해 장거리와 연구 및 제조 사업부만 보유하게 됨. 현재, 유선, 무선, 디렉터리, 기타 등 4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
- 2005년 11월 SBC에 인수되었으나 그 이름은 그대로 유지
- 유선전화와 인터넷 시장은 물론 AT&T Mobility를 통해 이동전화 시장도 주도하고 있음
- 2000년에 SBC 60%, BellSouth 40%의 합작투자회사로 Cingular Wireless가 설립되었는데, 2006년 AT&T의 BellSouth 인수 후 서

## 비스 명을 AT&T Mobility로 변경

o AT&T라는 이름 하에 SBC에 이은 BellSouth와의 합병으로 AT&T는 유선, 이동통신, 광대역 인터넷, TV로 이루어진 번들 서비스를 통해 컨버전스 전략을 추진하기가 더욱 용이해짐

- 현재 AT&T 고객 중 70% 정도가 번들 서비스 이용
- 번들 서비스 제공은 통신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o 웹사이트 : [www.att.com](http://www.att.com)

### [매출 및 가입자 현황]

(단위: 10억 달러, 100만 명)

구분	2005	2006	2007.1/4	2007.2/4
영업수익	43.764	63.055	28.969	29.478
영업이익	6.168	10.288	-	-
순익	4.786	7.356	2.848	2.904
유선 회선 수	-	46.307	65.429	64.078
DSL 회선 수	-	8.529	12.842	13.203
광대역 가입자 수	-	8.538	12.861	13.260
무선 가입자 수	-	60.962	62.217	63.673

(자료: BMI, 2007. 3/4)

### [AT&T Mobility 가입자 현황]

(단위: 백만 명)

구분	Mar-05	Jun-05	Sep-05	Dec-05	Mar-06	Jun-06	Sep-06	Dec-06	Mar-07	Jun-07
전체	50.389	51.442	52.292	54.144	55.81	57.308	58.666	60.962	62.217	63.673
선불	3.074	3.395	3.608	4.061	4.409	4.814	5.150	5.897	6.142	6.686

후불	47.32	48.05	48.68	50.08	51.40	52.49	53.52	55.06	56.08	56.99
GSM (2G)	50.389	51.442	52.292	54.144	55.810	33.518	58.666	60.962	62.217	24.673
CDMA 2000 (3G)	na	na	na	na	na	23.790	na	na	na	39.000
시장점유율 (%)	26.6	26.5	26.1	26.0	26.2	26.1	26.0	26.2	26.2	26.3
시장침투율 (%)	17.6	18.0	18.3	18.9	19.8	20.0	20.8	21.6	21.9	22.4
신규가입자	na	1.053	0.850	1.852	1.666	1.498	1.358	2.296	1.255	1.456
신규가입자 점유율(%)	na	18.6	13.0	24.0	28.1	21.2	30.8	30.9	25.8	34.3

(자료: BMI, 2007. 3/4)

## 2) Verizon

- AT&T의 뒤를 잇는 미국 제2대 통신 사업자
- 최근 Verizon은 케이블 사업자와 속속 등장하고 있는 VoIP 사업자들과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서 밀리면서 기본 전화 서비스의 가입자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 Verizon은 케이블 사업자의 번들 서비스에 대응해 최근 초고속 인터넷은 물론 HDTV를 비롯한 비디오 서비스까지 가능한 새로운 광섬유 네트워크 FiOS에 투자 중임
- 또한 VoIP 업체인 Vonage에 대적할 광대역 VoIP 서비스 VoiceWing을 제공
-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은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o 웹사이트 : [www.verizon.com](http://www.verizon.com)

[재정 상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매출	88,144	75,112	71,283	67,752	67,625	67,190
영업이익	13,373	14,814	13,117	7,494	14,997	11,564
순익	6,197	7,397	7,831	3,509	4,079	389
자본총계	48,535	39,680	37,560	33,466	32,616	32,539
장기부채	28,646	31,869	35,674	39,413	44,791	45,657
시장자본화	108,424	83,234	112,199	97,093	106,292	128,924
직원 수	242,000	217,000	210,000	203,100	229,500	247,000
영업이익률	15.2	19.7	18.4	11.1	22.2	17.2
자기자본수익률	12.8	18.6	20.8	10.5	12.5	1.2
부채비율	59	80.3	95	117.8	137.3	140.3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7.6.27)

[Verizon Wireless 가입자 현황]

(단위: 백만 명)

구분	Mar-05	Jun-05	Sep-05	Dec-05	Mar-06	Jun-06	Sep-06	Dec-06	Mar-07	Jun-07
전체	45.452	47.373	49.291	51.337	53.02	54.835	56.747	59.052	60.716	62.054
소매	43.407	45.289	47.171	49.027	50.660	52.581	54.562	56.812	58.458	60.080
도매	2.045	2.084	2.120	2.310	2.360	2.254	2.185	2.240	2.258	1.974
선불	1.545	1.516	1.528	1.591	1.660	1.853	1.956	2.136	2.322	2.406
후불	41.861	43.773	45.643	47.435	49.000	50.728	52.606	54.676	56.136	57.674
CDMA (2G)	27.652	28.273	27.691	27.637	26.872	25.914	25.801	24.705	24.753	22.542
CDMA 2000 (3G)	17.800	19.100	21.600	23.700	26.148	28.921	30.946	34.347	35.963	39.512

시장점유율 (%)	24.0	24.4	24.6	24.7	24.9	25.0	25.2	25.3	25.5	25.6
신규가입자	na	1,921	1,918	2,046	1,683	1,815	1,912	2,305	1,664	1,338
신규가입자 점유율(%)	na	33.9	29.4	26.5	28.4	25.7	43.4	31.0	34.2	31.5

(자료: BMI, 2007. 3/4)

### 3) Sprint Nextel

- 무선과 장거리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음
  -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Sprint PCS와 Nextel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Boost Mobile이라는 선불 서비스도 제공. 또한 필리핀에서는 Next Mobile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중
  - Sprint PCS는 CDMA 표준의 3G, Nextel은 TDMA 기반 iDEN 프로토콜 이용
- Sprint와 Nextel이 합병한 2004년 이후 상이한 두 사업자의 경영 방식, 고객 기반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비용이 증가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음
- 그러나 경영 방식과 전략을 재정비 하면 다음과 같은 경쟁력을 활용하여 재도약할 가능성이 큼
  - 100대 도시의 85%를 커버하는 무선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업체보다 대역폭이 큰 효율적인 주파수 대역 보유
  - WiMAX 기술에 초기 투자하여 4G 시장 선점 가능

o 웹사이트 : [www.sprint.com](http://www.sprint.com)

[재정 상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6	2005	2004
매출	41,028	34,680	27,428
영업이익	2,484	3,826	-303
순익	1,329	1,785	1,021
자본총계	53,131	51,937	13,521
장기부채	21,011	20,632	15,916
시장자본화	54,342	68,281	36,654
직원 수	n.a.	79,900	59,900
영업이익률	6.1	11	-1.1
자기자본수익률	2.5	3.4	7.6
부채비율	39.5	39.7	117.7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7.9.21)

[Sprint Nextel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단위: 백만 명)

구분	Mar-05	Jun-05	Sep-05	Dec-05	Mar-06	Jun-06	Sep-06	Dec-06	Mar-07	Jun-07
전체	42.992	44.343	45.615	47.636	48.868	51.664	51.897	53.074	53.642	54.015
도매	4.296	4.383	4.596	5.154	5.382	5.181	5.528	6.368	6.825	6.980
소매	38.696	39.960	41.019	42.482	43.486	46.483	46.369	46.706	46.817	47.035
선불	1.474	1.687	1.987	2.684	3.127	3.625	3.841	4.012	4.287	4.456
후불	33.826	34.776	35.967	36.977	39.103	41.405	41.675	41.805	41.585	41.601
CDMA (2G)	42.992	44.343	45.615	47.636	48.868	51.664	51.897	53.074	53.642	54.015
시장점유율 (%)	22.7	22.8	22.8	22.9	22.9	23.5	23.0	22.8	22.5	22.3
신규가입자	na	1.351	1.272	2.021	1.232	2.796	0.233	1.177	0.568	0.373
신규가입자 점유율 (%)	na	23.9	19.5	26.2	20.8	39.7	5.3	15.8	11.7	8.8

(자료: BMI, 2007. 3/4)

#### 4) T-Mobile USA

- 독일 T-Mobile International AG의 미국 자회사
  - 1999년 5월 모회사 Western Wireless로부터 분리 독립한 VoiceStream Wireless가 2001년 Deutsche Telekom에 인수되어 T-Mobile이라는 이름을 갖게 됨
- 미국에서 네 번째의 무선통신사업자로 30개의 유럽나라들을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인 로밍 서비스를 제공함
- 아직 3G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았으나 2006년 9월 AWS 주파수 경매에서 대다수의 주파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판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웹사이트 : [www.t-mobile.com](http://www.t-mobile.com)

#### [T-Mobile USA 가입자 현황]

(단위: 백만 명)

구분	Mar-05	Jun-05	Sep-05	Dec-05	Mar-06	Jun-06	Sep-06	Dec-06	Mar-07	Jun-07
전체	18.271	19.244	20.302	21.69	22.725	23.338	24.139	25.041	26.02	26.877
선불	2.156	2.448	2.79	3.266	3.576	3.682	3.711	3.829	4.083	4.253
후불	16.115	16.796	17.512	18.424	19.149	19.656	20.428	21.211	21.937	22.624
GSM (2G)	18.271	19.244	20.302	21.690	22.725	23.338	24.139	25.041	26.020	26.877
시장점유율 (%)	9.7	9.9	10.1	10.4	10.7	10.6	10.7	10.7	10.9	11.1
신규가입자	na	0.973	1.058	1.388	1.035	0.613	0.801	0.902	0.979	0.857
신규가입자 점유율(%)	na	17.2	16.2	18.0	17.4	8.7	18.2	12.1	20.1	20.2

(자료: BMI, 2007. 3/4)

### III. IT 산업 현황

1

개요

#### □ 개요

- 미국은 3억의 인구, 높은 소득 수준을 지녀 전 세계 최대 ICT 소비자 및 비즈니스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액세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한 주요 ICT 생산국이기도 함
- 미국은 세계 최대의 IT 상품 및 서비스 수출국으로서, 미국 내 IT 기업과 해외 자회사들의 2006년 매출이 1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2006년 수출 680억 달러, 수입 1,620억 달러로 940억 달러의 ICT 상품 무역 적자를 입은 것으로 보고됨
  - 이것은 외국에 설립된 미국 IT 기업 자회사들의 매출, 미국 본사와 외국 자회사 간 기업 내부 거래, R&D 활동의 글로벌화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줌
  - 이러 같이 생산과 유통을 활동을 글로벌하게 전개하는 방식은 이제 하나의 요구사항일 뿐 아니라 성공적인 경쟁력 확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IT 기업은 100,000개에 이르고 있음. 이들이 거두어들이는

총 매출 1조 달러 중 대부분은 IBM, Hewlett-Packard, Dell, Microsoft, Intel, Motorola 등 상위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연간 1,000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있음. 그러나 소기업들은 각기 다른 기술 분야에서 전문화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대기업과 공존하고 있음

## 2

## IT 시장 현황 및 전망

### □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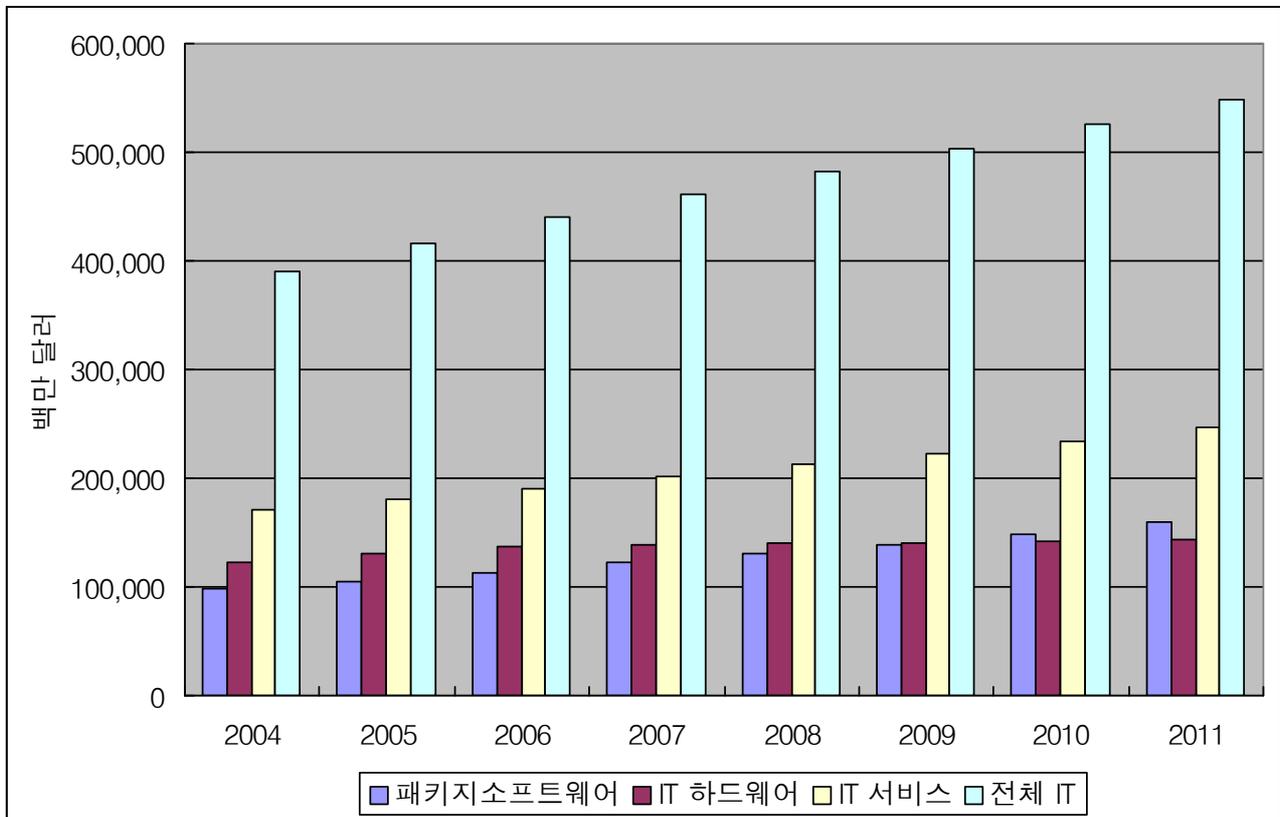
- 2006년 미국의 IT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출은 4,40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이 중 43%가 IT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하드웨어로 약 1/3로 나타남
- 앞으로 IT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여 향후 1-2년 이내 IT 시장 규모는 5,000억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시장의 비중이 점차 확장되면서 IT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IT 시장 규모(spending)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f	2008f	2009f	2010f	2011f
패키지 소프트웨어	97,855	105,340	113,408	121,960	130,515	139,480	149,061	159,301
IT 하드웨어	122,230	130,531	136,370	138,035	139,557	140,655	141,762	142,878
IT 서비스	170,919	180,214	190,599	201,325	212,129	223,022	234,474	246,514
전체 IT	391,004	416,086	440,376	461,321	482,201	503,157	525,025	547,842

(자료: Pyramid Research, IDC,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7.6.11)



- 2007년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PC 등의 IT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던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8-2011년에도 비즈니스

스 부문의 투자는 2004-2006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부문별로 살펴보면 하드웨어 시장의 성장이 크게 정체되고 IT 지출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기업들은 컴퓨터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액세스 제공 등 전 세계 여러 IT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이러한 판도는 계속 유지될 것임. 이와 같이 미국의 IT 산업을 번창시키는데 기여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손꼽을 수 있음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하기 용이한 유연한 비즈니스 환경.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는 진입 장벽이 거의 없는 것을 평가됨
  - 기술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하고 기술 친화적인 소비자 기반
  -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B2C, B2B, C2C 등 각 부문의 전자상거래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미국은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데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IT 기술에 있어서만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검증된 후 모멘텀을 얻어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IT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 중 하나로 PC, 휴대폰, TV 등 전자장치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점차 웹 기반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들 수 있음

- 이로 인해 PC는 휴대폰, 디지털 음악 재생기, 카메라, PDA 등 다양한 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허브로 그 역할이 진화하고 있음
- 또한 디지털 비디오, 컴퓨터 게임, 디지털 카메라,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등이 급속하게 대중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은 더 강력한 프로세서, 확장된 메모리,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 등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
-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 동안 주춤했던 PC 판매도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 부문별 현황

### 1) 하드웨어

- o 미국은 이동통신 기술에서는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PC와 인터넷 기술을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o 1980년대 Apple 사가 마이크로컴퓨터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후 미국은 줄곧 PC 기술과 혁신을 주도해 음. 미국의 PC 산업은 매우 경쟁이 활발하여 가격 인상 없이 더욱 강력한 신제품들을 계속 발표하는 것이 가능함
- 현재 미국 시장에서 PC는 1990년대 중반의 절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2005년 현재 미국의 PC 보급률은 거의 79%로 스위스와 한국에 이어 세 번째이며, 전체 미국 가국 중 약 70%가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PC 보급률 현황 및 전망]

(기준: 인구 1,000명 당)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PC 보급률	749	787	818	844	868	890	911	931

(자료: Pyramid Research, IDC,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7.6.11)

- 미국 시장의 PC 매출은 지난 20여 년 동안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유지해 오다 2006년에는 전 세계 평균 매출 성장률 1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가장 큰 원인은 기업에서의 수요가 감소한 데 있으며, Window Vista 운영 소프트웨어의 출시 지연도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노트북 시장은 계속 활기를 띠고 있으며 PC가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PC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미국의 PC 시장을 살펴보면 Dell사와 HP사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 미국 PC 시장 ]

(단위: 1,000, %)

회사명	2007.3/4		2006.3/4		연간성장률
	판매대 수	점유율	판매대 수	점유율	
Dell	4,833	29.1	5,113	32.3	-5.5
HP	4,260	25.7	3,656	23.1	16.5
Apple	1,338	8.1	975	6.2	37.2
Toshiba	945	5.7	813	5.1	16.3
Gateway	865	5.2	1,011	6.4	-14.4
기타	4,344	26.2	4,269	27.0	1.7
전체	16,585	100.0	15,837	100.0	4.7

(자료: Gartner, 2007.10)

- 폭등과 폭락을 쉽게 거듭하는 IT 산업의 속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즈니스 방식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조정하게 하였음
-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 기업들은 구성부품의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조 부문을 CM(contract manufacturer)에 맡기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보조 서비스로의 다각화도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이 부문에서 IBM의 성공적인 사례는 다른 기술 기업들도 통합 및 지원 서비스로부터의 서비스 수익을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하도록 자극하고 있음
- 또한 주요 하드웨어 업체들은 중국과 같이 아직 포화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기회요소로 인식하고 글로벌 확장을 추

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미국의 휴대폰 시장에서는 2007년 2/4분기 3,300만 대가 판매되어 전분기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 중 28%는 판촉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또 다른 28%는 50달러 이하의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됨
  - 2/4분기 전체 매출액은 24억 달러로 추정됨
  - 휴대폰 제조사별로는 미국 기업인 Motorola가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미국 휴대폰 시장(2007.2/4) ]

(단위: %)

업체명	점유율
Motorola	32
삼성	18
LG	17
Nokia	10
Sanyo	4
기타	19
계	100

(자료: NPD Group, 2007.8)

- Motorola는 미국 시장에서는 나머지 업체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 세계 시장에서는 최근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전 세계 휴대폰 시장 ]

(단위: 백만 대)

업체명	2006.3/4		2007.2/4		2007.3/4	
	판매	점유율	판매	점유율	판매	점유율
Nokia	88.5	34.90%	100.8	38.90%	111.7	39.20%
Samsung	28.9	11.40%	37.4	14.40%	42.6	14.90%
Motorola	53.7	21.20%	35.5	13.70%	37.2	13.10%
Sony Ericsson	19.8	7.80%	24.9	9.60%	25.9	9.10%
LG	16.5	6.50%	19.1	7.40%	21.9	7.70%
기타	46.4	18.30%	41.3	15.90%	45.7	16.00%
계	253.8	100.00%	259	100.00%	285	100.00%

(자료: Strategic Analysis, 2007.10.25)

## 2) 소프트웨어

- o 닷컴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극심한 성장통을 이겨내며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음. Microsoft와 Oracle을 비롯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을 여전히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많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급 과잉 속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음
- o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통합이 가속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Microsoft와 IBM이 인수 대상을 물색 중이며, Oracle은 18개월간의 싸움 끝에 PeopleSoft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데 성공함
- o 소프트웨어 시장이 성숙할수록 인도, 러시아, 중국과 같은 외국에 아웃소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o NPD Group에 따르면, 2006년 미국 시장에서 게임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의 소매 매출액은 29억 달러로 2005년 30억 달러에 비해 2% 감소함
- 부문별로 판매가 가장 크게 증가한 소프트웨어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로 2005년에 비해 각각 10%, 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시스템 유틸리티 중에서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무려 19% 증가하여 성장을 견인함
- 반면 운영체제와 금융 소프트웨어는 각각 30%와 8%씩 가장 크게 감소함

[ 미국 소매 소프트웨어 시장 최다 판매 제품(2006년) ]

(단위: 달러)

소프트웨어	제조사	출시	가격
MS Office 2003 Student/Teacher Ed	Microsoft	2003.10	136.91
TurboTax 2005 Deluxe With State	Intuit	2005.11	38.41
Norton Internet Security 2006	Symantec	2005.9	65.39
Quickbooks 2006 Pro	Intuit	2005.11	171.22
MS Office 2004 Student/Teacher Ed	Microsoft	2004.3	147.73
Norton Antivirus 2006	Symantec	2005.9	34.89
Spy Sweeper	Webroot	2003.4	16.90
TurboTax 2005 Premier With State	Intuit	2005.11	67.59
MS Windows XP Home Ed. Upgrade	Microsoft	2001.10	93.34
Norton Internet Security 2006, System Works 2006 Upgr Bundle	Symantec	2005.11	59.21

(자료: NPD Group, 2007.2)

### 3) 전자상거래

- 미국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4분기 온라인 소매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2.8%로, 2005년과 2003년 평균인 2.2%와 1.7%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는 1,220억 달러로 추정되며, 앞으로 연간 20%씩 증가하면서 의류, 서적, 전자장치 등 다양한 품목 시장에서 보편화되어 갈 것으로 기대됨
- 특히 B2B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전자상거래의 94%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3년 말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and Forrester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중 85%가 인터넷을 통화 자재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에 경매 방식 판매와 가격 제도를 포함하는 온라인 거래소가 잘 구축되어 있음

#### □ 미국 기업 IT 부서의 주요 4대 분야별 경향

- 미국 기업 IT 부서의 전략(Strategy), 관리(Management), 보안(Security), 기술(Technology) 등 4대 주요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이 분야들에 대한 최근 트렌드는 아래와 같음

##### (1) 전략(Strategy) 분야의 주요 경향

-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매출 향상과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더욱 추구하고 있음
- 회사 내 IT 관련 부서는 판매부서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
- 업체들은 고객들을 위해 회사 웹사이트를 좀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로 단장하고 있음

- 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질 더욱 향상시키고 있음
- IT 최고 책임자들은 전략부분에 더욱 치중하고 있음

## (2) 관리(Management)분야의 주요 경향

- IT 부서와 일단 다른 부서와의 경계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IT 최고 책임자들의 연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IT 관련 부서의 조직이 점차 거대해지고 있음
- IT 최고 책임자들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웃소싱이 IT 관리에 더욱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해외 아웃소싱을 인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기업들은 IT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3) 보안(Security)분야의 주요 경향

- IT산업에 있어 보안위협에 대한 줄어들지 않고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보안 문제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사용이 줄어들고 있음
- 회사의 재정 시스템 프로세스 업그레이드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
- 정부의 법규나 규제에 부합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4) 기술(Technology)분야의 주요 경향

- 지속적으로 최적으로 IT 구조를 찾고 있음

- 현재 사용하고 있는 CRM, ERP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으며 자사에 맞는 최적의 애플리케이션 구매에 나서고 있음
- IT 혁신은 더 이상 기술 개발 또는 진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위주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적으로 외부 서비스 및 제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만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o 시사점

- 미국 기업 IT 부서는 전략적이며 보안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관심이 많음
- 미국 기업 IT 부서는 전략적으로 프로세서 개선을 통한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생산성을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부서와 크게 교류가 늘어나고 있으며, 아웃소싱과 혁신적인 기술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마지막으로 컴퓨터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고 있고 IT 혁신이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IT 부서 경향은 제품 구매와 기술 수요뿐만 아니라 IT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경향 파악을 통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전략 수립이 필요함

## 1) Microsoft(MS)

- 1975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
- Client, Information Worker, Server and Tools, Microsoft Business Solutions, Unified Communications, MSN, Mobile and Embedded Devices, Home and Entertainment 등 8개 그룹으로 나누어짐
  - Windows와 Office가 속해 있는 Client와 Information Worker가 2006년 6월 회계연도 전체 매출의 5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나 두 부문이 매출의 85%를 차지하던 2004년에 비해 다각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전 세계 PC의 94%에서 MS의 Windows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고 있으며, 워드, 스프레드시트 등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역시 널리 이용되고 있음.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게임, 휴대폰 기술, 디지털 TV 플랫폼 등 새로운 영역에까지 사업을 확장함
- MS는 다음과 같이 회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전략을 수립함
  -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 압력에 대응 : 기업을 위한 음성 및 통신 소프트웨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이 부문의 시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음성인식 기술 개발업체인 Tellme Networks를 8억 달러에 인수
  - 온라인과 가전제품을 필두로 하는 신규 시장 진출 : 온라인 부문에서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추진하고 검색 및 웹 기반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 내용을 이룸. DoubleClick 인수를

구글에 놓친 후 온라인 광고업체인 Aquantive를 60억 달러에 인수하는 데 성공함. 가전 제품 부문에서도 Xbox 360 콘솔이 아직까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 Xbox Live도 성공적으로 개시. 또한 Alcatel과 손잡고 IPTV 플랫폼 제품 시장에도 뛰어 들었음

- o 그러나 최근 도처에서 압력이 거세지면서 1990년대 정점을 이루었던 성장세를 되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요 수익 창출원인 Windows와 Office의 성장세 둔화
  - 홈엔터테인먼트, 가전 등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부문에서는 아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기술 산업, 특히 온라인 부문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대중화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지배권 약화
  - 반경쟁적인 관행에 대한 규제기관의 끊임없는 제재
  
- o 웹사이트 : [www.microsoft.com](http://www.microsoft.com)

[ 재정 상태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06/6/30	05/6/30	04/6/30	03/6/30	02/6/30	01/6/30
매출	44,282	39,788	36,835	32,187	28,365	25,296
영업이익	16,472	14,561	9,034	9,545	11,910	11,720
순익	12,599	12,254	8,168	7,531	7,829	7,346
자본총계	40,104	48,115	74,825	61,020	52,180	47,289
시장자본화	234,445	266,036	310,219	276,168	293,137	392,959
직원 수	71,000	61,000	57,000	55,000	50,500	50,500

영업이익률	37.2	36.6	24.5	29.7	42	46.3
자기자본수익률	31.4	25.5	10.9	12.3	15	15.5

(자료: EIU, 2007.6.21)

## 2) IBM

- 2006년 시장 가치가 1,480억 달러로 MS의 절반 수준이나 매출액은 2005년 910억으로 50년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IT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옴. 단, 2006년 917억 달러를 벌어들인 HP에 역전당함
-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기술 등 세 가지가 주요 비즈니스 부문임. 이 중 컨설팅, 시스템통합, 유지관리, 웹호스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데이터센터 아웃소싱 등의 글로벌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음
- IBM은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과감히 투자하고 희소성이 떨어진 시장에서는 일찍이 발을 빼는 전략을 구사함. PC 업체에서 서비스로 전환한 것도 이를 증명하며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자사의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
  - 이러한 전략 하에 잠재력이 있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그러나 IBM의 목적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체로의 변모가 아니라 하드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각 비즈니스 라인으로부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임
- 또한 IBM은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존의 다국적 방식과는 달리 세계 각 지역에 흩어진 다양한 사업부 기능을

통합해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글로벌 통합(global integration)'이라는 전략을 추진

- 인도,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성장 가능성이 크면서 비용을 절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지역에서 사업 기능을 확장할 계획임. 반면 비용이 높고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서유럽에서는 비즈니스를 축소하고 있음

○ 웹사이트 : [www.ibm.com](http://www.ibm.com)

[ 재정 상태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06/12/31	05/12/31	04/12/31	03/12/31	02/12/31	01/12/31
매출	91,424	91,134	96,293	89,131	81,186	85,866
영업이익	12,829	10,324	12,144	10,089	6,796	9,295
순익	9,492	7,934	8,430	7,583	3,579	7,723
자본총계	28,506	33,098	29,747	27,864	22,782	23,614
장기부채	13,780	15,425	14,828	16,986	19,986	15,963
시장자본화	146,355	129,381	162,223	157,047	133,483	208,438
직원 수	355,766	329,373	329,001	319,273	315,889	319,876
영업이익률	14	11.3	12.6	11	8.4	10.8
자기자본수익률	33	24	28.3	27	15.7	32.7
부채비율	48	46.6	49.8	61	87.7	67.6

(자료: EIU, 2007.5.21)

3) HP

- 1939년 두 창립자의 차고에서 시작된 벤처에서 PC, 프린터,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IT 대기업으로 성장

- 2006년 10월 말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5.8%의 성장을 기록하며 91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IBM을 누르고 세계 최대의 IT 기업으로 등극. 또한 미국 PC 시장에서는 여전히 Dell에 이어 2위에 머물러 있으나 전 세계 PC 판매량에서는 2007년 2/4분기 1,120만대로 950만대를 판매한 Dell을 추월함. 이로써 2000년대 초반의 부진을 씻고 2005년부터 실적이 회복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고무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 HP의 사업 부문은 크게 개인 시스템 그룹(Personal Systems Group), 이미징 및 프린팅 그룹(Imaging and Printing Group), 기술 솔루션 그룹(Technology Solutions Group)으로 나누어짐
  - 이 중 PC, 워크스테이션, 휴대장치를 포함하는 개인 시스템 그룹이 전체 수익의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인쇄 사업은 오랫동안 HP의 주요 수익원으로서 전체 수익에 27.9% 기여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전 세계 시장의 50%가 넘는 시장을 점유해 옴
- HP는 Mercury Interactive, Bristol Technology, Peregrine Systems 등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하여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함. 분산형 시스템 관리에서는 이미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올리는 데 더욱 주력할 방침
- 웹사이트 : [www.hp.com](http://www.hp.com)

[ 재정 상태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06/10/31	05/10/31	04/10/31	03/10/31	02/10/31	01/10/31
매출	91,658	86,696	79,905	73,061	72,346	45,226
영업이익	6,560	3,473	4,227	2,896	-1,018	1,439
순익	6,198	2,398	3,497	2,539	-928	408
자본총계	38,144	37,176	37,564	37,746	36,262	13,953
장기부채	2,490	3,392	4,623	6,494	6,035	3,729
시장자본화	105,838	79,549	54,319	67,889	48,095	32,630
직원 수	156,000	150,000	151,000	142,000	141,000	86,200
영업이익률	7.2	4	5.3	4	-1.4	3.2
자기자본수익률	16.2	6.5	9.3	6.7	-2.6	2.9
부채비율	6.5	9.1	12.3	17.2	16.6	26.7

(자료: EIU, 2007.5.21)

#### 4) Dell

- o 1984년 창립 이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 후 제작 납품하는 획기적인 판매 방식과 효율적인 조립 라인, 신속한 납품에 힘입어 최고의 PC 업체로 성장함
- o 그러나 최근 치열해진 시장 경쟁 환경에 더해 배터리 리콜, 회계 처리에 대한 미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전세계 PC 시장에서 HP에 밀리기 시작하는 등 수세에 몰리고 있음. 게다가 Intel의 마이크로프로세서만을 채용하는 대가로 Intel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주주들에 의해 제소되기에 이름
- o 이러한 악재가 계속되자 창업자 Michael Dell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효율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

- 고객 서비스 개선을 통해 배터리 리콜과 신속하지 못한 기술 지원으로 실추된 이미지 회복. 특히 고객의 의견을 직접 듣는 노력은 리눅스를 탑재한 컴퓨터 출시로 이어짐
- 저가 시장에서 벗어나 고가의 PC는 물론 홈 엔터테인먼트,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등 좀더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다각화 모색. 현재 다른 제조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평면 TV를 판매 중
- 하드웨어보다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 확장. 2006년 11월 영국의 기술 서비스 업체인 ACS를 인수하고 PC 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대형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와 같은 복잡한 서비스로 확장 노력
-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존의 직접판매 방식을 수정한 데 있음. 2007년 초 두 가지 모델의 노트북 모델을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월마트를 통해 유통하였고, 지난 7월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소매점과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시장을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함

o 웹사이트 : [www.dell.com](http://www.dell.com)

[ 재정 상태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07/2/3	06/2/3	05/1/28	04/1/30	03/1/31
매출	57,420	55,788	49,121	41,327	35,262
영업이익	3,070	4,382	4,206	3,525	2,738
순익	2,583	3,602	3,018	2,625	2,031
자본총계	4,328	4,047	6,412	6,238	4,846
장기부채	569	625	662	645	581
시장자본화	63,060	68,176	103,774	85,473	61,535
직원 수	83,300	65,200	55,200	46,000	39,100
영업이익률	5.4	7.8	8.6	8.6	8
자기자본수익률	60.9	67.3	47.7	47.4	44.4
부채비율	13.1	15.4	10.3	10.3	10.4

(자료: EIU, 2007.11.7)

## 5) Apple

- 하드웨어와 운영체제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PC 전체의 설계 및 개발을 책임지는 유일한 PC 업체
- Apple의 사업 부문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음악 제품 및 서비스로 크게 나누어짐
  - 하드웨어 부문에는 매킨토시를 포함한 PC와 서버 제품이 포함됨. 2006년 9월 매킨토시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지난해 45%보다 감소하였으나 순매출액은 연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07년에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음. 전 세계 시장에서는 PC 업체 중 8위이나 주무대로 삼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4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매킨토시용 애플리케이션을 생산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영화 편집, 사운드 편집, 그래픽 디자인 등을 위한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시장에 주력하고 있음
  - 음악 제품 및 서비스 부문의 핵심인 iPod은 연간 69%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iPod의 성공으로 온라인 음악 시장인 iTunes의 대중화도 이끌어냄. Apple 사는 미국 내 디지털 음악 재생기 시장의 75%, 합법적인 음악 다운로드 시장의 80~85%를 점유하고 있음
- 웹사이트 : [www.apple.com](http://www.apple.com)

[ 재정 상태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06/9/30	05/9/24	04/9/25	03/9/27	02/9/28	01/9/29
매출	19,315.00	13,931	8,279	6,207	5,742	5,363
영업이익	2,413.75	1,650	326	-1	17	-344
순익	1,989.00	1,335	276	68	65	-37
자본총계	9,984	7,466	5,076	4,223	4,095	3,920
장기부채	0	0	0	0	316	317
시장자본화	65,838	7,933	5,248	4,625	4,502	4,427
직원 수	17,787	14,800	11,695	10,912	10,211	9,603
영업이익률	13	11.8	3.9	0	0.3	-6.4
자기자본수익률	20	17.9	5.4	1.6	1.6	-0.9
부채비율	0	0	0	0	7.7	8.1

(자료: EIU, 2007.6.21)

## 6) Oracle

- o 1977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업체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ERP),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CRM), supply chain planning(SCM)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o 현재 거의 모든 산업에서 Oracle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포춘 100대 기업 중 98개 기업의 사무실에서 Oracle의 제품을 발견할 수 있음
- o Oracle은 또한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됨.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개발, 의사결정 지원 툴 등 전 제품 라인에 인터넷이 가능한 엔터프라이

## 즈 소프트웨어를 구축함

- 향후 Oracle은 성장 유망 부문으로 보안, 콘텐츠 관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리드 컴퓨터, 기업 검색을 선정하고 이 부문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기업 인수와 비용 절감을 2대 전략으로 추구
  - 2006년 말 현재 중국에서 북경, 상해, 심천, 성도에 26개의 지사와 연구소를 설립
  - 또한 ERP 부문에서 다수의 주요 기업을 인수하는 데 190억 달러를 투자하며 제품 라인업 정비와 비용 절감을 노리고 있음
- 웹사이트 : [www.oracle.com](http://www.oracle.com)

### [ 재정 상태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06/5/31	05/5/31	04/5/31	03/5/31	02/5/31
매출	14,380	11,799	10,156	9,475	9,673
영업이익	4,736	4,022	3,864	3,440	3,571
순익	3,381	2,886	2,681	2,307	2,224
자본총계	15,012	10,837	7,995	6,320	6,117
장기부채	5,735	159	163	175	298
시장자본화	n/a	65,856	58,949	68,081	43,014
직원 수	n/a	49,872	41,658	40,650	42,006
영업이익률	32.9	34.1	38	36.3	36.9
자기자본수익률	22.5	26.6	33.5	36.5	36.4
부채비율	38.2	1.5	2	2.8	4.9

(자료: EIU, 2007.7.26)

## 7) Motorola

- 1928년 배터리 정류기를 시작으로 1983년 세계 최초의 상용 휴대폰을 선보이며 모바일 시장의 개척자로 떠오름
- 최근 Motorola는 모바일 무선 통신에 주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03년 반도체 부문을 Freescale Semiconductor라는 별도 회사로 분사하였고, 2006년 4월에는 자동차 부문을 Continental에 매각함
- 현재 Motorola의 사업은 모바일 기기, 네트워크 및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홈 솔루션으로 구성됨. 이 중 모바일 기기 부문이 2006년 12월 현재 전체 매출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 모바일 휴대폰 시장에서 수익률은 다소 양보하더라도 점유율을 확장한다는 전략을 펴. 그러나 2007년 1/4분기 모바일 기기 매출 15% 감소, 1억 8,100만 달러의 순 손실을 입었고, 유럽과 신흥 시장에서 경쟁 업체에 밀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 중반으로 감소하였으며 순위도 밀림
- 그 결과 주가 하락 등의 파급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인원 감축, 비즈니스 모델 재정비, 스타일보다 기능성을 강조한 새 제품라인 소개 등에 나서고 있음
- 그러나 저가 시장에서는 고객충성도 부족으로 인해 시장을 침식당하고 고가 시장에서는 RIM의 BlackBerry와 Apple의 iPhone과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음

o Motorola가 초기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전략적인 운영과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전략을 재정비한다 할지라도 모바일 시장이 전체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시점에서 중단기적으로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웹사이트 : [www.motorola.com](http://www.motorola.com)

[ 재정 상태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06/12/31	05/12/31	04/12/31	03/12/31	02/12/31
매출	42,879	36,843	31,323	23,155	27,279
영업이익	4,092	4,696	3,132	1,273	-1,813
순익	3,661	4,578	1,532	893	-2,485
자본총계	17,142	16,673	13,331	12,689	11,239
장기부채	2,704	3,806	4,578	6,673	7,189
시장자본화	49,291	52,503	42,102	32,742	20,027
직원 수	66,000	69,000	68,000	88,000	97,000
영업이익률	10	12.7	10	5.5	-6.6
자기자본수익률	18	27.5	11.5	7	-22.1
부채비율	16	22.8	34.3	52.6	64

(자료: EIU, 2007.7.24)

## IV. IT 분야 협력 현황

1

### IT 교역 현황

#### □ IT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수출				수입			
	2004	2005	2006	2007	2004	2005	2006	2007
전체 산업	42,849	41,343	43,184	45,766	28,783	30,586	33,654	37,219
IT산업	16,883	13,115	12,489	13,872	8,421	8,619	8,671	7,627
IT의 비중	39.4%	31.7%	28.9%	30.3%	29.3%	28.2%	25.8%	20.5%

(출처 : KIICA, 한국무역협회)

#### □ 對미국 IT분야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달러)

품목	수출				수입			
	2004	2005	2006	2007	2004	2005	2006	2007
<b>통신기기 및 장비</b>	<b>7,615</b>	<b>5,738</b>	<b>4,850</b>	<b>6,270</b>	<b>717</b>	<b>820</b>	<b>948</b>	<b>862</b>
유선통신기기 및 장비	200	278	476	551	428	465	478	542
무선통신기기 및 장비	7,414	5,460	4,374	5,719	289	355	472	320
- 휴대폰	6,830	4,857	3,864	5,096	20	53	218	16
<b>정보기기</b>	<b>2,140</b>	<b>1,536</b>	<b>1,440</b>	<b>1,586</b>	<b>771</b>	<b>861</b>	<b>899</b>	<b>827</b>
컴퓨터	548	323	124	187	405	431	331	343
- 노트북	156	46	3	9	9	13	13	8
주변기기	1,434	1,048	1,160	1,237	144	176	297	181
- 모니터	785	494	475	458	25	28	42	23
- 저장장치	333	252	358	287	74	90	181	114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85	85	74	56	184	220	231	249
<b>디지털가전/방송</b>	<b>2,010</b>	<b>1,362</b>	<b>922</b>	<b>838</b>	<b>210</b>	<b>235</b>	<b>241</b>	<b>179</b>
TV	787	474	176	329	44	25	11	12
- 디지털 TV	607	370	113	128	35	13	-	2
- TV 부분품	179	104	66	201	9	13	6	10
셋탑박스	281	153	190	67	2	3	8	1
디지털미디어 기기	755	576	433	339	50	75	77	45
<b>IT 부품</b>	<b>5,118</b>	<b>4,479</b>	<b>5,275</b>	<b>5,178</b>	<b>6,723</b>	<b>6,704</b>	<b>6,095</b>	<b>5,759</b>
반도체(능동부품)	4,638	3,686	3,896	3,340	5,969	5,810	5,229	4,905
디스플레이패널	0	0	926	1,346	0	0	438	389
범용부품	31	21	453	491	2	3	428	465
<b>전체</b>	<b>16,883</b>	<b>13,115</b>	<b>12,487</b>	<b>13,872</b>	<b>8,421</b>	<b>8,619</b>	<b>8,187</b>	<b>7,627</b>

(출처 : KIICA, 한국무역협회)

## □ 정부 간 IT 협력현황

### ○ 'FTA 추가협상' 美 응한다('07.6)

- 정부는 미국측이 제안한 노동과 환경분야를 비롯, 7개 분야의 내용은 지난달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평가
- 또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의약품과 정부조달, 투자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고 자체 진단
- 정부는 협상에는 응하되 미국측의 제안내용과 의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키로. 정부는 또 21일 미국 대표단 방한시 미국측으로부터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

### ○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몽골·중국·미국 등지로 차세대 IT 세일즈('07.06)

- 노 장관은 다음달 10일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 등 10개 IT기업들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내셔널(National) IT IR'을 개최하는 등 왕성한 IT 세일즈 의지를 나타냄

### ○ 김창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미 선진기업 방문('07.06)

- 김창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이 글로벌 RFID/USN 협력을 위해

17일 출국, 23일까지 미국 에일리언테크놀로지·사비테크놀로지·NXP 등 선진기업들을 방문

- 이 기간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 연합연구소(CITRIS)와 공동 연구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

#### ○ 과기부, 美와 원자력 협력 강화 ('07.05)

- 우리나라가 원자력 분야에서 78개 기술협력 과제를 발굴해 공동 추진키로 하는 등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강화
-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워싱턴 미 국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8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통해 원자력 정책 및 관련 기술, 원자력 안전통제, 핵연료주기 분야 등에서 협력방안을 논의

#### ○ 06.12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美 에너지부장관 접견

-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는 12월 13일 오전 美에너지부장관(사무엘 보드만: Samuel Bodman)의 예방을 받고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국제열핵융합로(ITER), 과학기술혁신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등 양국 간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논의

#### ○ 06.10 노 장관, 미국 FCC 케빈 마틴 위원장과 IT 장관 회담

-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보통신부를 방문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케빈 마틴 위원장과 IT 장관회담을 통해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걸맞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정보 교환 등 IT 분야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계획

o 06. 8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미국(뉴욕) 방문

-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은 8월 14일(미국 현지 시간) 세계최고수준의 연구기관인 벨연구소 및 IBM 왓슨연구소를 방문하여 상호협력방안을 모색

□ 국내 IT기업 진출현황

[국내 IT기업의 미국 진출 현황]

회사명	진출형태	진출연도	전화 이메일	업종	연매출 (US\$천)	직원 (한국:외국)
LG전자	지점	1994	(281)376-4866	PC 주변기기 관련 HP와의 OEM Business	N/A	8:5
KTV	지점	1983	(1-973)470-9191 ercho@ktvusa.com	전자,통신	N/A	1:5
LG필립스	지점	1999	(281)320-2085	LCD제조	120	2:2
LG전자	N/A	1981	(1-847) 692-4500 sychi@lge.com	전기,전자 및 정보기기 무역	N/A	15:9
LG인포컴	법인-단독	N/A	(1-973)451-4300 brucechoi@lge.com	전자통신장비	N/A	1:30
LG전자	법인-단독	N/A	(1-201) 816-2000 mjhong@lge.com	전자.통신	N/A	1:290
LG케이블	지점	2002	(1-201)816-2253 jwk@lscable.com	케이블	N/A	2:0
SK C&C	지점	2001	(1-201)613-8126 dkim@skusa.com	정보처리,컴퓨터	N/A	1:0
SK텔레콤	지점	N/A	(1-201)613-8112 mgkim@skusa.com	전기통신	N/A	1:0
대우루컴즈	법인 단독	N/A	(1-201)531-1516 helenkim@daewooluco msamerica.com	전기전자	N/A	N/A

삼성SDS	지점	1997	(1-201) 229-4140 ks5525.lee@samsung.com	정보처리	N/A	0:8
삼성전자	법인-단독	1978	(1-201) 229-4000 gcwon.sea@samsung.com	전자통신장비	N/A	19:279
한국통신	법인-단독	1993	(1-201) 871-7400 chriskim@ktamerica.com	정보통신	N/A	2:5
에드전자	지사	1996	562-920-5599	전자통신	N/A	3:1
SOS정보통신	법인-단독	2000	(408) 855-8332	전자통신	N/A	N/A
유니텔주식회사	법인-단독	2001	(408) 544-5155 info@unitel.co.kr	전자통신	N/A	1:9
한세전자	지사	1997	(1-310) 715-1598	전자통신	N/A	1:1
레이콤	법인-단독	2000	(1-847) 795-0547 hykim@lacomm.com	전자통신	N/A	2:0
모닝전자	지점	2000	(1-847) 795-0564 belovedbyjc@hanmail.net	전자통신	N/A	2:0
제니스전자	법인-단독	1991	(1-877) 993-6484	전자통신	N/A	0:300
텔슨전자통신	법인-합작	1987	(1-816) 746-1098 mshild@tekinc.com	전자통신	N/A	1:20
피카소정보통신	법인-단독	2004	972-406-8260 jyshin@picasoic.com	전기통신	N/A	1:3
캠텔	법인-합작	1997	1-703-934-2900 cs@calmtel.com	전기통신	N/A	N/A
넥스텔	연락사무소	1999	1-703-256-1518 petersh@uriel.net	전자통신	N/A	0:6
파이컴	법인-단독	2002	(1-408) 232-5445 Hmchang@phiamcorp.com	전자통신	800	1:2
피치텔레콤	지점	2003	(1-408) 519-5813 dkkim@peachtel.co.kr	정보처리	N/A	2:0
LG 전자	연락사무소	2003	1.248)616.1901 bbaik@lge.com	전자통신	N/A	2:1
삼성전기	법인-단독	1993	1.248)822.1760~1	전자통신장비	30,000	N/A
한올테크놀로지	전체	N/A	1.248)953.8691 hchae@hanalltech.com	정보처리, 컴퓨터운영	N/A	N/A

(출처 : KOTRA)

## V. 전자정부 구축 현황

1

개요

### □ 배경

- 미국 전자정부 사업은 2001년까지 범국가적인 전략 수립 없이 공무원 중심, 업무 자동화, 부처 단위 정보화를 주로 추진
- 그 결과 투자 대비 생산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2002년부터 전자정부를 대통령관리아젠다(PMA: President's Management Agenda)로 포함하여 추진

2

추진 방법

### □ 법/제도 정비

- 정부문서업무감축법(PRA, 1980)의 제정을 시작으로 정보자원관리(IRM)를 위한 기본정책의 틀 마련
- 정부성과결과법(GPRA, 1993), 정부문서업무감축법(PRA, 1995), 정보기술 관리 개혁법(ITMRA, 1996), 정부문서업무폐지법(GPEA, 1998) 등 각종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법제정비 추진
-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을 통해 각 부처 정보자원관

리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간 연계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대민 서비스 제고 달성

## □ 추진 체계

### ○ 예산관리처(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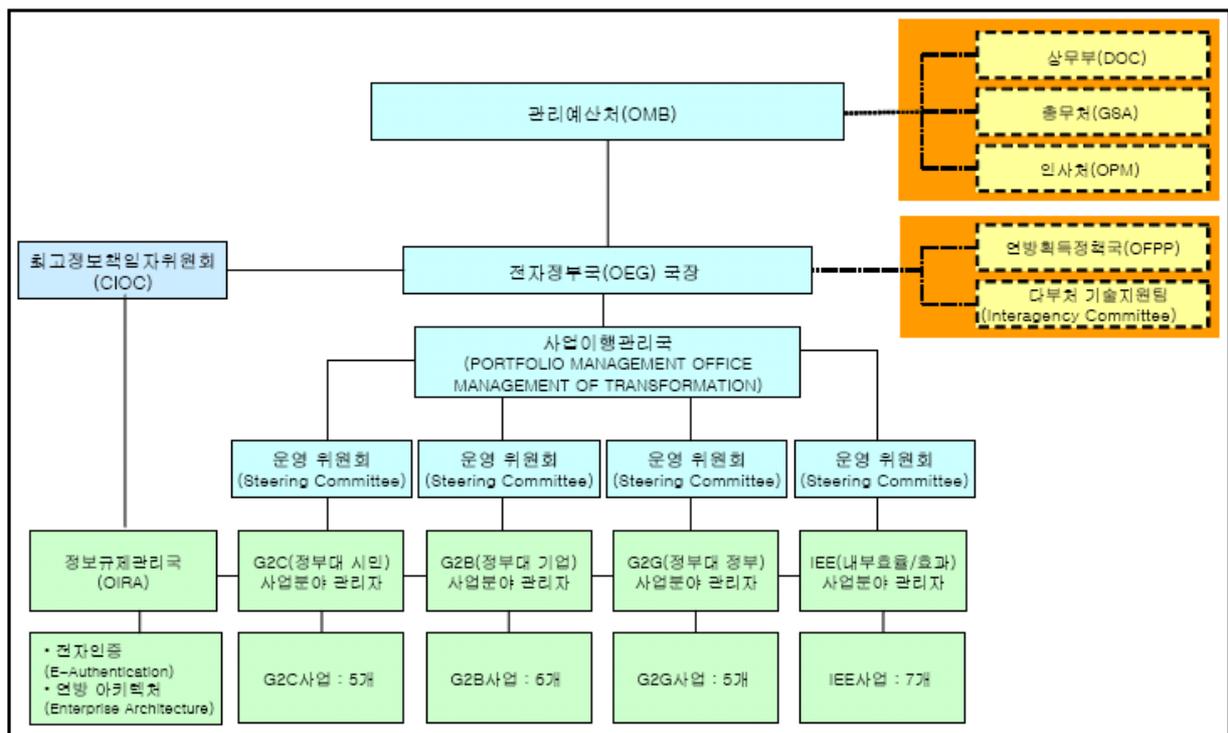
- 2003년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에 따라 전자정부 추진확대를 위해 전자정부국(Office of E-Govern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을 설치
- 예산관리처(OMB)는 각 부처의 대통령관리아젠다(PMA) 및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스코어카드(scorecard)3)에 반영하여 공개
-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CIOC), 총무처(GSA)와 함께 연방정부아키텍처(FEA)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정보화사업의 투자효율성 달성, 정보공유 및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확대,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촉진
- 전자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전자서명(E-Authentication), 공공 및 개인정보의 접근 및 공유에 대한 안내(guidance) 등을 제공하고, 기관들의 준수에 대한 상황을 국회에 매년 보고
- 2003년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에 따라 전자정부 기금(E-Government Fund)을 설치하여 전자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총무처(GSA)가 운영하고 예산관리처(OMB)는 기금사용 승인 및 운영상황 보고
- 연방정부의 정보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규제사무국(OIRA)은 전자정부국과 정보 보안, 프라이버시, 연방정부아키텍처(FEA) 개발,

정보기술자본계획투자 통제 등과 관련하여 협력

o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CIOC : Chief Information Officer Council)

- 대통령령 13011호에 의해 1996년 7월 설립되었으며, 전자정부법 (E-Government Act 2002)에 의하여 설립근거가 법제화
-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 의장은 예산관리처(OMB)의 관리차장 (Deputy Director for Management)이 맡으며, 부의장은 참여기관의 대표 중에서 선출
- 정보기술관리정책, 관련 표준, 정보자원 공유, 보안,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한 권고안 개발, 연방정부의 정보화 인력 평가 및 조정 등을 담당하고 이와 관련한 하부위원회 운영

[전자정부 추진체계]



## □ 추진 사업 결정

- 예산관리처(OMB)는 전자정부 확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1년 7월 77명으로 구성된 범부처 차원의 작업반(Quicksilver Task Force) 발족
- 작업반(Task Force)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세부기준 포함)에 대하여 각각 10점 척도로 평가,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20개 과제를 발굴함
  - 서비스 전달성 향상(정부업무처리 효율성, 시민 편의 정도, 사용 시민 수)
  - 사업 가능성(사업소요기간, 이행에 따른 위험 정도)
  - 사업 효과성(비용 효율성 향상 등 금전적 효과, 응답성 향상 등 운영효과 정도)
  - 소요 자원(투자금액)
- 또한 업무사례(business case) 구성을 통해 3개 과제를 발굴
- 그 결과 작업반은 정부 대 시민(G2C) 분야의 5개 사업, 정부 대 기업(G2B) 분야의 6개 사업, 정부 대 정부(G2G)분야의 5개, 사업 및 운영 및 내부효율화(IEE)의 7개 사업, 범정부 차원 1개 사업, 총 24개의 사업을 추진
  - 정부 대 시민사업(G2C)과 정부 대 기업사업(G2B)은 시민과 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단일창구를 통해 원스탑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 정부 대 정부사업(G2G)은 지방정부-주정부-연방정부 간 파트너십을 재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
- 내부효율과 효과증진(IEE) 사업은 민간분야의 모범사례를 정부부문에 적용하여 운영효율성 향상, 비용절감 및 정부부문 업무처리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 추진

## □ 세부사업 내용

### o G2C

사업	부처	내용
여가생활(Recreation One-Stop) <a href="http://www.recreation.gov">www.recreation.gov</a>	내무부(DOI)	여가장소 및 관련 물품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통합사이트
정부지원 자격조회(GovBenefits.gov) <a href="http://www.govbenefits.gov">www.govbenefits.gov</a>	노동부(DOL)	개인의 정부지원자금 및 서비스 수혜 가능여부 조회 및 지원신청 사이트
정부대출서비스(E-Loans) <a href="http://www.govloans.gov">www.govloans.gov</a>	교육부(DOE)	각종 대출프로그램을 원스탑으로 검색 및 신청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
USA서비스(USA Services) <a href="http://www.usaservices.gov">www.usaservices.gov</a>	총무처(GSA)	시민들의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답해주는 원스탑 서비스
개인 세금신고 서비스(IRS Free File) <a href="http://www.irs.gov/app/freeFile/welcome.jsp">www.irs.gov/app/freeFile/welcome.jsp</a>	국세청(IRS)	시민 스스로가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

o G2B

사업	부처	내용
기업 세금서비스 (Expanding E-Tax Products for Businesses) <a href="http://www.irs.gov">www.irs.gov</a>	재무부 (DOT)	기업의 세금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우며, 세금정보를 제공
연방자산매각(Federal Asset Sales) <a href="http://www.firstgov.gov">www.firstgov.gov</a>	총무처 (GSA)	각부처의 처분재산 및 비품정보의 통합과 기업의 구매 가능
수출지원 (International Trade Process Streamlining) <a href="http://www.export.gov">www.export.gov</a>	상무부 (DOC)	20여개 중소수출업체의 지원사이트를 통합하여, 각종 정보 및 거래제공
중소기업 종합지원(Business Gateway) <a href="http://www.business.gov">www.business.gov</a>	중소기업청 (SBA)	중소기업의 창업에서 폐업까지 활동에 필요한 법, 규정, 거래, 정보 등 제공
통합건강정보 (Consolidated Health Informatics) <a href="http://www.hhs.gov">www.hhs.gov</a>	복지부 (HHS)	시민의 건강정보를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표준 제정

o G2G

사업	부처	내용
재해관리(Disaster Management) <a href="http://www.disasterhelp.gov">www.disasterhelp.gov</a>	국토안보부 (DHS)	재해관련 정보와 대응수단의 온라인 공유 및 시스템 구축
공공안전을 위한 무선통신 (SAFECOM) <a href="http://www.safecomprogram.gov">www.safecomprogram.gov</a>	국토안보부 (DHS)	연방, 주, 지방정부 간 무선으로 응급 상황에 대한 정부 공유
출생, 사망정보 공유(E-Vital) <a href="http://www.ssa.gov">www.ssa.gov</a>	사회안전청 (SSA)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출생 및 사망 기록을 온라인으로 공유
정부보조금(Grants.gov) <a href="http://www.grants.gov">www.grants.gov</a>	복지부 (HHS)	각종 단체들의 연방재정보조의 기회 검색 및 신청을 지원하는 서비스

o IEE

사업	부처	내용
교육훈련(E-Training) <a href="http://www.golearn.gov">www.golearn.gov</a>	인사관리처 (OPM)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원스탑채용(Recruitment One-Stop) <a href="http://www.usajobs.gov">www.usajobs.gov</a>	인사관리처 (OPM)	정부의 일자리 현황 검색과 이력서 제출 등이 가능한 직원채용 통합시스템
인적자원 통합관리 (Enterprise HR Integration) <a href="http://www.opm.gov/egov">www.opm.gov/egov</a>	인사관리처 (OPM)	연방정부 공무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환과 인적자원관리의 분석 시스템 구축
전자신원조회(E-Clearance) <a href="http://www.opm.gov/egov">www.opm.gov/egov</a>	인사관리처 (OPM)	통합된 공무원 신원조회절차 제공
봉급관리(E-Payroll) <a href="http://www.opm.gov/egov">www.opm.gov/egov</a>	인사관리처 (OPM)	연방정부의 22개 봉급시스템 통합
출장관리(E-Travel) <a href="http://egov.gsa.gov">http://egov.gsa.gov</a>	총무처 (GSA)	부처별 출장관리체계 일원화, 원스탑 출장서비스 제공
통합조달환경 (Integrated Acquisition Environment) <a href="http://www.BPN.gov">www.BPN.gov</a> <a href="http://www.FeBizOpps.gov">www.FeBizOpps.gov</a> <a href="http://www.FedTeDS.gov">www.FedTeDS.gov</a> <a href="http://www.PPIRS.gov">www.PPIRS.gov</a> <a href="http://www.wdol.gov">www.wdol.gov</a> <a href="https://fpds.gov">https://fpds.gov</a> <a href="http://www.epls.gov">www.epls.gov</a> <a href="http://www.contractdirectory.gov">www.contractdirectory.gov</a>	총무처 (GSA)	조달, 물류, 성과 등에 관한 타 부처의 상세한 정보 통합
전자기록관리 (E-Records Management) <a href="http://www.archives.gov">www.archives.gov</a>	기록보존소 (NARA)	범정부적인 전자기록 보존, 관리 시스템

o 범정부 차원의 사업(Cross-Cutting)

사업	부처	내용
전자인증(E-Authentication) <a href="http://www.cio.gov/eauthentication">www.cio.gov/eauthentication</a>	총무처(GSA)	공개키, 스마트카드 등의 기술로 온라인상 상대의 신분을 전자적으로 확인

## □ 평가

- 199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미국의 전자정부는 오랜 역사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평가기관	정보화지수명(평가연도)	순위	조사대상국수
Accenture	Leadership in Customer Service(2005)	2위	22
UN	E-Government Readiness Index(2005)	1위	191
IDC	Information Society Index(2004)	3위	53
EIU	e-readiness rankings(2007)	2위	69
브라운대학교	Global e-Government(2004)	3위	198

## □ 서비스 이용 현황

- 2006년 12월 OMB에서 발표한 보고서 'Expanding E-Government'에 따르면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음
  - G2C: 월 평균 301,875 명의 방문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기관들이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월 평균 118,579 건 이상의 조회 수를 올림. 2006년 세금 신고 기간 동안 390만 명 이상이 IRS Free File을 이용해 무료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함
  - G2B: 2006년 8월 현재, 고용세(Employment Tax),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고용자 확인 번호(Emplo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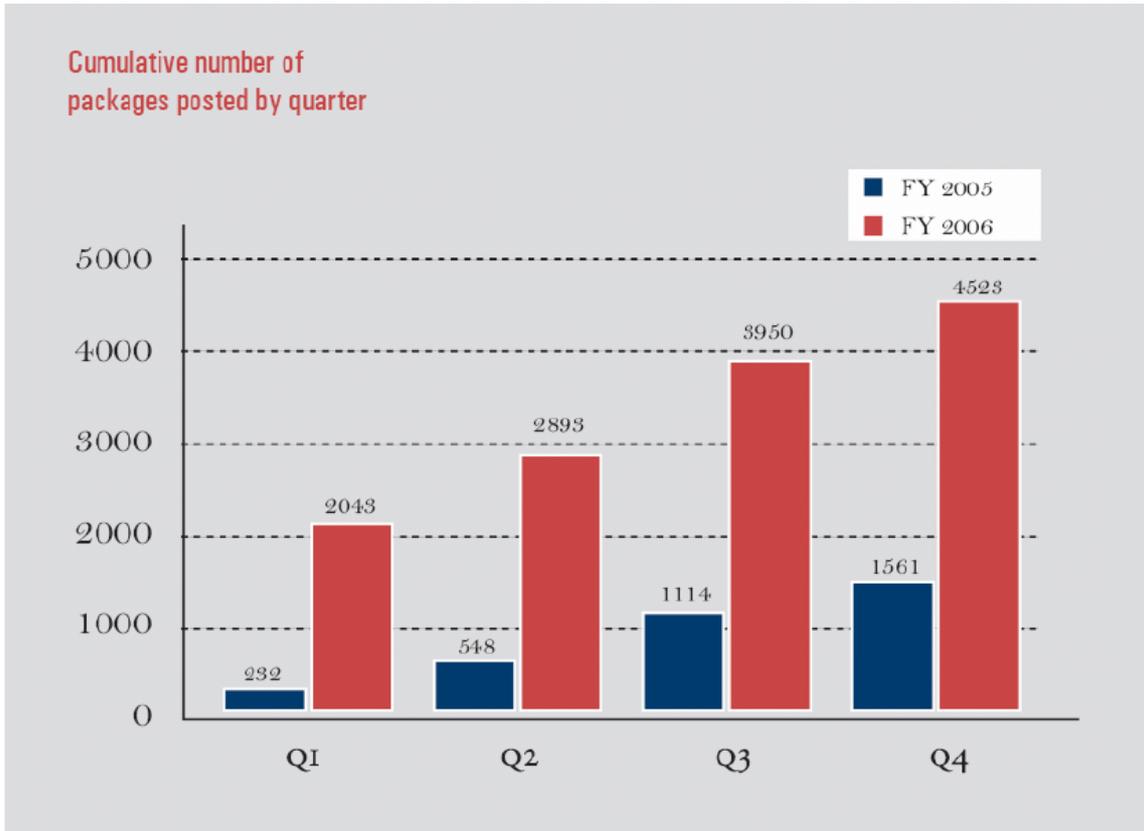
Identification Number), 임금 신고(Wage Reporting) 신청서 양식이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법인소득세 양식은 9%만이 온라인으로 접수되었음

- G2G: 2006년 9월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는 26개 기관 모두가 grants.gov 사이트를 통해 1,000개 이상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공 중. 그러나 고객 만족도는 56%에 불과
- IEE : 연방 공직 구직자들의 온라인 이력서 작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77%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o 주요 서비스 별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GovBenefits.gov : 정부 혜택 및 서비스를 조회하고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포인트. 월 평균 300,0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만 건의 조회가 있었음
- IRS Free File : 2006년 세금 신고 기간 동안 390만 명 이상이 IRS Free File을 이용해 무료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함
- Grants.gov : 2005년 서비스를 개시한 후 동 사이트를 통한 보조금 신청 양식이 크게 증가함. 2005년 1/4분기에는 252건이 게재되었으나 2006년 4/4분기 게재 건 수가 4,523으로 무려 17배 증가함

[Grants.gov에 게재된 보조금 신청 양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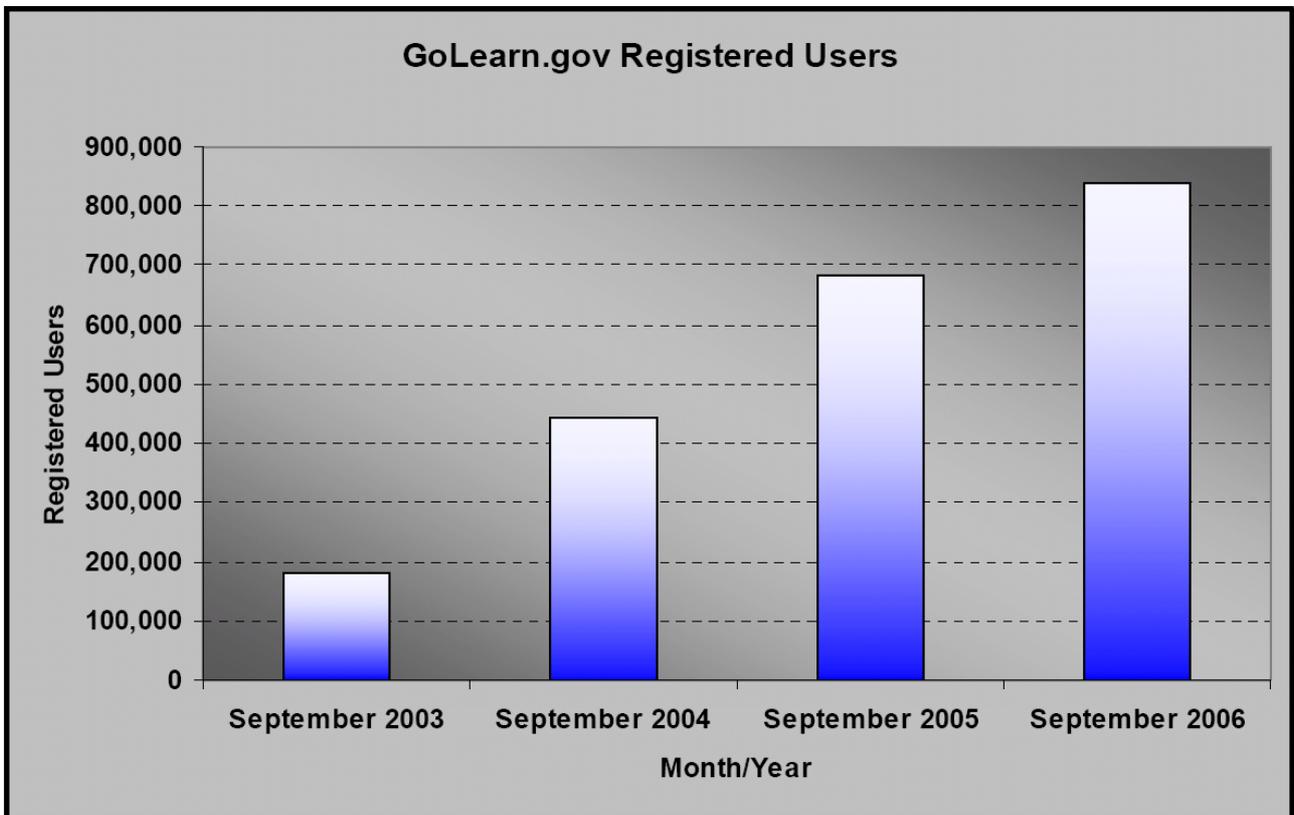


(자료 : OMB, 'Report to Congress on the Benefits of the President's E-Government Initiatives', 2007.2)

- SAFECOM : 2006년, 유사시 1시간 이내 상호운용 통신을 설정할 수 있는 도시 지역 수가 10에서 75로 증가함. 또한 공공안전 기관 중 66%가 상호운용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함
- E-Travel : E-Travel 서비스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가장 먼저 완료한 기관 중 하나인 노동부는 출장 결재 문서 비용이 문서 당 60 달러에서 25 달러로 60% 감소되었고 문서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7일에서 3일로 줄었다고 보고함. 또한 교통부와 내무부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하고 있음

- E-Training - 현재까지 840,000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GoLearn.gov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등록. 연방 공무원들은 E-Training을 통해 270만 개 이상의 과정을 수료함. E-Training은 연방 정부가 저렴한 비용으로 공무원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GoLearn.gov 등록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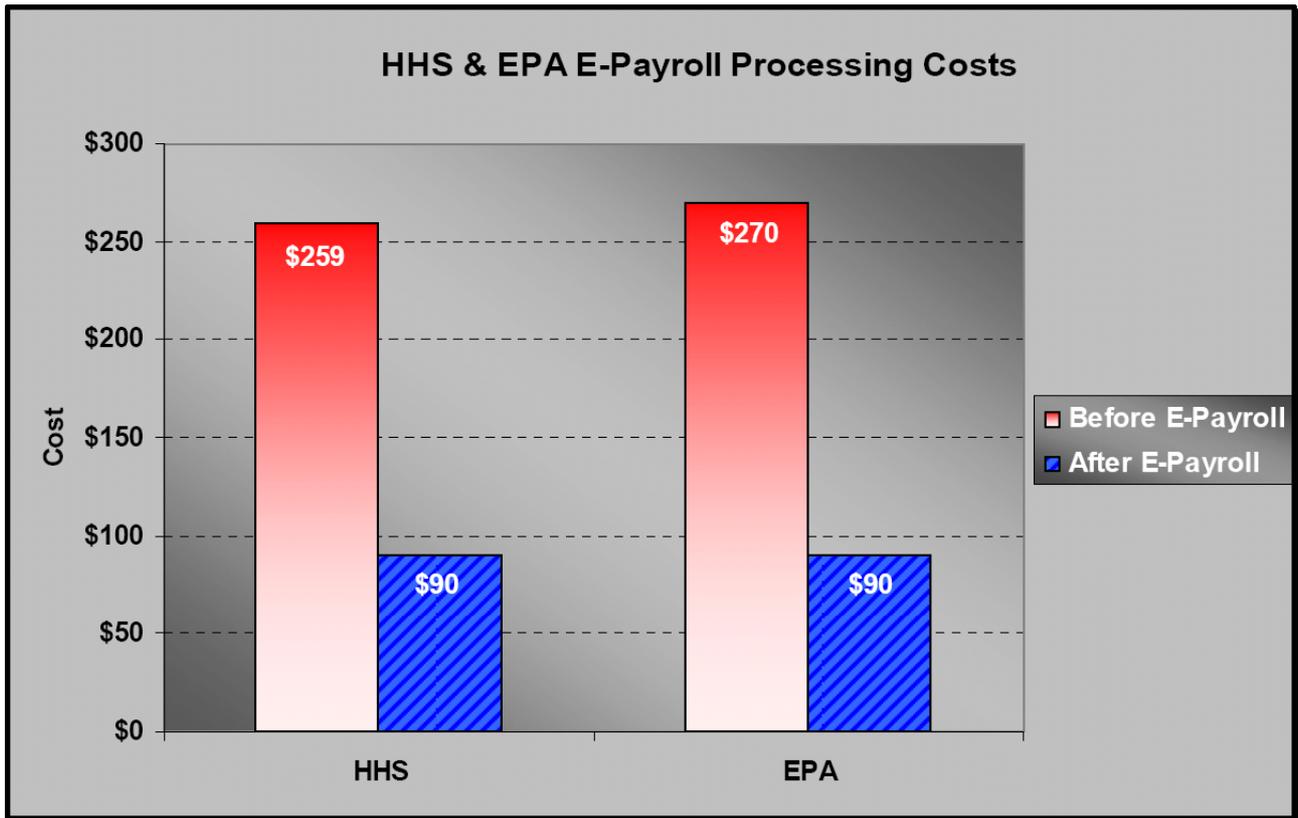


(자료 : OMB, 'Report to Congress on the Benefits of the President's E-Government Initiatives', 2007.2)

- E-Payroll - 4개의 봉급 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이 가능함. HHS는 65,000이 넘는 직원들의 봉급 처리 비용을 직원 당 259 달러에서 90 달러로 줄여 연간 1,1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봄. EPA의 경우 18,000명의 직원들의 봉급 처리 비용을 1이당 270 달러에서 90달러로 감소하여 연

간 320만 달러를 절약함

[HHS와 EPA의 E-Payroll 처리 비용]



(자료 : OMB, 'Report to Congress on the Benefits of the President's E-Government Initiatives', 2007.2)

- Recruitment One-Stop - 매달 100,000개 이상의 이력서가 연방 정부의 온라인 채용 서비스인 USAJobs.gov에 생성되고 있으며 USAJobs.gov 사이트에는 매일 240,000 명 이상의 구직자들이 방문하고 있음

## VI. 정보통신 동향

- T-Mobile USA Inc, 고객 서비스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 (2008.2)
  - 1968년 설립된 美 글로벌 마케팅 정보업체 J.D.Power and Associates는 미국 이동통신 업체 가운데 T-Mobile USA社가 고객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음
    - 美 이동통신 업계 고객 서비스 부문 순위를 조사해 온 J.D. Power and Associates社는, 자사의 이번 발표는 美 이동통신 업체들이 자사 고객들에게 휴대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얼마나 잘 처리했는가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
    - 이번 조사에서 T-Mobile USA社가 고객서비스 만족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AT&T와 Alltel社가 공동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print Nextel社는 최하위를 기록했음
    - 이동통신사 고객들 중에는 이동통신요금의 부적절한 납부 청구에 문의하기 위해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한 수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또한, 각 이동통신사별로, 서비스 센터에 문의한 고객들 가운데 4/3은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았으며, 나머지 4/1정도가 직접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전화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의 전화통화 시간은 대략 3분을 조금 넘겼으며,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한 고객들이 서비스 받은 시간은 9분 정도를 서비스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 미국, 디지털 TV 시대 임박 (2008.1)

- 2009년 2월 17일부터 디지털 방송 시대가 열리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은 디지털 TV를 마련하거나 디지털 신호 전환장치를 구입해야 하며 혹은 케이블 TV나 위성 TV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1,350만 미국 가정이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TV나 컨버터 기기 수요, 케이블 TV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비즈니스위크誌가 소개한 다양한 컨버터 기기 중 LG전자가 제조한 제니스의 컨버터 기기는 아날로그 TV로 DVD급의 화질 전송이 가능한 제품으로, 와이드스크린용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구형 스크린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원 버튼 '줌' 컨트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

## □ 델, 미국내 키오스크 폐쇄 예정 (2008.1)

-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 델社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품 판매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미국 내 키오스크(kiosk) 140개를 전부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이 키오스크들은 직접판매 방식을 이용하는 델의 컴퓨터를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하기 전에 먼저 만나볼 수 있도록 2002년 개설되기 시작되었으며, 주로 쇼핑몰에 위치하고 있음

- 델사는 전통적으로 온라인이나 전화로 고객이 직접 주문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베스트바이와 월마트, 스테이플스 등 소매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해 옴. 이와 같이 소매점을 이용한 유통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델이 소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라고 토니 와이스 부사장은 설명
- 키오스크의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수나 사업 종료로 입을 손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 근로자는 퇴직수당과 전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밥 카우프만 대변인은 설명. 단, 델은 미국 내 키오스크만 폐쇄하며 해외의 키오스크는 그대로 유지
- 한편 델의 이번 조치는 대규모 점포망을 구축했으나 소매 전문기업 이머신즈(eMachines)를 인수하면서 이를 폐쇄한 게이트웨이의 전례와 유사. 게이트웨이는 지난 해 에이서에 인수됨

#### □ 모토로라, 휴대폰 사업부 매각 가능성 고려 (2008.1)

- o 모토로라社가 휴대폰 시장에서 침식당하고 있는 지위를 회복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인 비즈니스 재편의 일환으로 휴대폰 사업부 매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표
- 모토로라 CEO 그렉 브라운은 성명을 통해 휴대폰 사업부의 회복과 주주들의 가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언급. 이것은 2007년 모토로라 매출이 3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 휴대폰 매출이 190억 달러로 33% 감소했다는 암울한 실적 발표에 이어 나온 소식

- 이에 대해 가트너의 필립스 레드먼 연구원은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모토로라의 존재감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핵심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다. 모토로라는 특정 제품에서는 외부로부터 개발팀을 영입하는 등 보다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한편 J. Gold Associates의 연구원 잭 골드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이번 발표는 실적 악화에 브라운 CEO가 단순히 소감을 피력한 것”이라고 부언

#### □ 美 700 MHz 상용주파수 경매, 망 개방 현실화 (2008.1)

- o 지난 1월 24일부터 시작된 700MHz 상용주파수 경매 17차 라운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C 블록에 FCC가 설정한 최소경매가를 웃도는 입찰이 등장하여, 오픈 액세스 네트워크의 등장이 가시화됨
- FCC는 C 블록에서 50개 주 중 8개 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라이선스를 설정. 그리고 이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사업자는 모든 무선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는 “오픈 액세스” 조건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한 최소 가격으로 46억 달러를 설정
- 1.31(목) 17차 라운드에서 이 라이선스에 47억 달러를 입찰한 사업자가 등장하여 최소 가격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앞으로 C 대역을 낙찰받는 사업자는 “오픈 액세스” 조건에 따라 망을 개방해야 함
-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해당 입찰자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구

글과 Verizon Wireless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 그 중에서도 C 블록에 47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온 구글이 유력한 것으로 보임

- 구글은 C 대역을 확보하여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낙찰받지 못한다 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입장. 다른 사업자가 C 대역을 확보할 경우 구글은 망 구축에 투자할 필요 없이 현재 개발 중인 오픈 액세스 플랫폼 Android를 이용하는 장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
- 이러한 이유로 일부 전문가는 구글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주파수 확보가 아니라 망개방이라고 언급. 결국 이번 경매는 구글이 원하는 결과를 향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미국의 무선통신 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

#### □ 미국 무역대표부, IT 관련 전자제품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에 대응 시사 (2008.1)

○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전시회에 참석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Susan Schwab 대표가 EU가 IT 관련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WTO와의 공조 하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1996년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이듬해 발효된 정보기술협정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은 IT 상품의 무관세화

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전세계 기술 상품 무역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70개 WTO 회원국으로 하여금 컴퓨터와 컴퓨터 부품 등을 비롯한 IT 상품에 대해 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EU는 복합 기능 프린터, 일부 LCD 모니터, 셋톱박스 등은 ITA가 제정되기 이전 고안된 것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 그러나 Schwab 대표는 ITA가 그 동안 내용이 개정되고 새로운 상품 기능을 추가시켜 이러한 상품들 역시 ITA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 현재 EU에서는 19인치 이상의 LCD 모니터를 ITA가 적용되지 않는 TV로 분류시키고 있음
- Schwab은 WTO와의 협조 하에 ITA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번 현안이 소모적인 소송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컨버전스' 제품을 ITA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

#### □ 브로드컴, 와이파이 칩 시장에서 1위 ... ABI 리서치 (2007.12)

- o 시장조사기관인 ABI 리서치는 美 브로드컴(Broadcom)이 와이파이(Wi-Fi) 칩 공급업체 가운데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발표
- 同 기관은, 애서로스 커뮤니케이션즈(Atheros Communications) · 마벨세미컨덕터 (Marvell Semiconductor)가 2위 ·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 이어, 인텔이 4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Nanoradio · Metalink · Comsis · 퀄컴 · TI · CSR社가 차례대로 순위에 올랐다고 공개
- ABI 리서치의 Philip Solis 애널리스트는 “브로드컴은 소형 칩셋이나 저전력 칩셋을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나,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해 업계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
- ABI 리서치는 이번 발표를 위해 싱글 칩 802.11g 제품 · 싱글 칩 802.11n 제품 · 칩의 크기 · 전력 소모량 및 다른 기술과의 통합 능력 등을 고려해 평가
- 더불어, 전반적인 시장점유율 · 핵심 고객사로부터의 수주율, 차세대 기술인 802.11n 솔루션의 신속한 타임투마켓 정도 등을 심층 분석

#### □ 美, VoIP로 911 긴급통화 가능키로 (2007.12)

- o 인터넷전화 (VoIP) 업체가 긴급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1.13(화) 미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스카이프 (Skype)와 같은 VoIP업체들은 이제 국가의 E911시스템에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음
- 이제까지 유선전화나 이동전화와는 달리 VoIP 통화는 발신자의 위치를 식별하지 못해 가까운 소방서와 경찰서 등의 관련 기관에 연결하기 어려워 긴급통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음.
- 이번에 통과한 ‘911의 현대화와 공공안전에 관한 법안’은 모든 종

류의 통신 기술은 발신자 위치 확인과 근접기관 연결 기능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음

- 同 법안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의 911 시스템을 인터넷전화와 호환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바꾸기 위하여 관련사업의 추진을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였음. : :

#### □ MS, 러시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추진 (2007.11)

-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社가 11.26(월) 러시아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시베리아 자치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힘. 아직 이르쿠츠크를 건설지로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 지역의 IT 분야에 광범위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회사는 덧붙임
- MS는 성명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최종 건설지 선정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밝힘
- 同社는 기존의 퀸시, 워싱턴, 샌안토니오, 아일랜드의 더블린과 더불어 최근에는 시카고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회사는 35개의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센터 건설 위치를 선정하고 있으며, 물과 전력의 공급, 전기요금, 데이터통신선 용량 등이 그 기준에 포함된다,”고 MS의 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사 Mike Manos가 설명함

□ 버라이즌社, 모든 기기에서 자사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계획 (2007.11)

- 美 이동통신 사업자 버라이즌 와이어리스社는 2008년 모든 기기 및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사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11월 27일 발표
- 同社의 이러한 움직임은 美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 구글社가 지난 10월 휴대전화용 무료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분석
- 버라이즌社 관계자는 이를 통해 현재 50여종에 불과한 자사 네트워크 지원 휴대전화 단말기가 금방 500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버라이즌社의 이러한 조치에 따른 영향은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

□ 美國, 유료 HDTV 시청자 수 급증 중 (2007.11)

-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 HDTV 시청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현재 HDTV 최다 시청자를 보유한 일본을 바짝 추격 중
- 美조사기관인 SNL Kagan에 따르면 2007년 말 920만 가구 이상의 일본 가정들이 HDTV를 시청할 것으로 전망됨.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다른 국가들이 HD기술의 시범단계를 거쳤던 것과 달리,

일본은 일찍부터 아날로그 브로드캐스트 HDTV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프로그램 제작자와 시청자들이 저가 디지털 HDTV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줌

- 한편 일본에 비해 HDTV를 뒤늦게 도입한 미국에서는 현재 HDTV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08년에 HDTV를 시청하는 미국 가구가 1,200 만 가구를 상회하여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 현재 미국의 600 만 가구가 HD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집계됨
- 미국의 이 같은 빠른 성장세는 유료 TV 사업자들이 HDTV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SNL Kagan의 애널리스트 Ben Reneker는 “HDTV 사업자들은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 하며 새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 위성, IPTV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HD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한편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서는 유료 HDTV가 무료 HDTV에 비해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임

#### □ 미일 통신장비 무역협정 체결 (2007.11)

- 미국과 일본이 양국간 통신 장비 무역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설 기관으로 하여금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함

- 협정 제목은 ‘통신 장비의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에 관한 미일 상호 인정 협정(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 of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이며, 지난 2월과 6월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차례로 승인된 데 이어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
- 이 협정에 따라 미국과 일본 양국은 통신 단말기와 전파 장비가 상대국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시험 및 인증 기관으로 사설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미 무역부 부대표(Deputy USTR) John Veroneau는 성명을 통해 “일본이 미국의 통신 장비 수출국 중 그 규모가 5번째 이르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이번 협정은 미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표. 또한 “궁극적으로 양국간 통신 장비 교역을 더욱 촉진시키고 교역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협정의 의미를 평가함

□ 美 스프린트넥스텔社, 美 클리어아이어社와의 와이맥스 파트너십 계획 취소 (2007.11)

- 美 스프린트넥스텔社가 11월 9일 美 클리어아이어社와의 와이맥스 파트너십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해 스프린트社의 야심찬 미국 전역 와이맥스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음
- 이번 결정은 同社의 와이맥스 전략 수립자인 게리 포시 前 CEO가 이사회에 압력으로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

- 이와 관련 同社는 "여전히 와이맥스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지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와이맥스 사업 계획과 전망을 다시 검토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내년 초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힘
- o 한편, Sprint는 지난 7월,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한 신생 회사인 클리어와이어(Clearwire)와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를 협력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 합의에 따르면 두 회사는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독자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되 로밍을 허용하고 네트워크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 일부 2.5 GHz 주파수를 서로 교환할 계획이었음
  - 또한 Sprint는 올해 안에 시카고, 볼티모어, 워싱턴 D.C. 지역에서 WiMax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 봄 안에는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 □ 미국 정부기관, 오픈소스 지지 대세 (2007.11)

- o 55%의 미국 정부 관리들이 자신들의 부처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고, 71%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부처에 이롭게 작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연방 오픈소스 연합(Federal Open Source Alliance)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남
- 연방 오픈소스 연합은 정부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도록 후원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인텔, HP, Red Hat으로 구성되어짐. 同 설문조사는 미국 정부 기관들의 IT 관련 의사결정자 218명을 상대로 실시하였음

- “오픈소스는 정부기관들 사이에서 모멘텀을 확보하는 중”이라고 HP의 공공사업팀 이사 Cathy Martin이 말함
- 미국 국가안전국 (National Security Agency)은 데이터 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애플리케이션 보안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며 악성 혹은 불량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파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월부터 SE (Security-enhanced) 리눅스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 중임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인 주요 이유로는 향상된 보안 기능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e) 기능, 통합 데이터센터 추세 등을 꼽고 있음

#### □ 모토로라社, 이스라엘을 향후 주요 투자 거점으로 간주 (2007.11)

- o 모토로라社의 그렉 브라운 COO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사의 향후 주요 투자 거점이 될 것이라고 11월 1일 언급
- 그는 자사가 지난 3년간 이스라엘 시장에서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신규 업체에 대한 투자를 해왔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이러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
- 현재 모토로라社는 이스라엘에서 3,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

며 同國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최대 규모의 다국적 기업 중 하나

- 브라운 COO는 모토로라社가 전통적인 정보통신 사업 외 이스라엘의 국토 보안 개발 사업과 수자원 및 관개 제어 시스템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첨언

#### □ 美 연방무역위원회(FTC),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문제 검토할 예정 (2007.10)

- 온라인 이용자들의 행태 분석을 통해 특정 대상을 겨냥하는 광고가 광고업계의 수익모델로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창하는 이들은 정부가 디지털 공간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이와 관련해 미국의 소비자단체 연합은 광고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온라인 행적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소비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do-not-track-list'제도의 도입을 촉구했으며, 美 연방무역위원회(FTC) 역시 회의를 열어 기업체가 수집한 온라인 정보에 대한 통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
- 이러한 온라인 행적 추적은 현재로서는 방문 웹사이트만 알 수 있는 정도이지만 전문가들은 同 기술이 향후 나날이 발전하면 웹서핑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도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
- 한편 온라인 행적 추적 기술 외에도 기업체들이 광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예를 들면 구글社는 이메일 내용을 스캔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社의 경우에는 조만간 개인

의 출신대학, 혼인 여부, 취미 등의 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광고 정책을 선보일 예정

## □ 美 의회, 인터넷 세금 유예 7년간 연장 (2007.10)

- 미국 하원이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14년까지 향후 7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10.30(화) 통과시킴
- 11.1(목)에 만료되는 현행 법안에 대해 미국 상원은 지난 주 목요일 향후 7년 동안 연장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며, 부시 대통령의 동의만을 남겨둔 상태.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금지안의 연장 및 영구 금지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공화당 John Sununu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세금 부과를 영구히 금지하는 법안을 요청하였으나, 의회는 아직까지 해당 요청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 한편, 이번 세금 부과 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인터넷 접속료가 17% 정도 인상될 것으로 우려했던 인터넷서비스업체, 무선인터넷업체와 기타 웹 기반 업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광대역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나아가 미국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명

## □ 반도체칩 위조 방지를 위한 무역 협정 마련 (2007.10)

- 특허 도용과 위조에 대항하는 세계 무역 협정이 마련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위조 반도체칩의 유통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해짐
- 미국 무역 대표부는 미국과 EU 외 여러 국가들이 반위조 무역 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10.23(화) 밝힘. 이는 WTO가 수립한 지적재산권을 준수하도록 각 국가들을 고무하게 될 것임
-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보다 나은 국가 간 협력, 우수 사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 수립 등이 포함됨
- ACTA는 급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위조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유럽위원회가 10.23 (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말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적발된 위조 제품이 1억 3천만 개가 넘음
- 미국은 캐나다, EU,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와 이번 반위조 무역 협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무역 대표단의 Susan Schwab 전함

#### □ 타임워너, 기업고객 대상 IPTV 서비스 (2007.10)

- 미국 IPTV 서비스 시장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 타임워너 케이블사가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케이블 모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10개 뉴스 채널을 공급하는 'BusinessLink.tv'라는 IPTV 서비스를 개시함

- 타임워너 케이블社는 기존의 Docsis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기업고객들에게 채널을 공급하며, 이를 위해 VectorMAX社의 서버, 인코더, PC 클라이언트를 사용함
- BusinessLink.tv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타임워너社의 첫 번째 IPTV 서비스이고, 이 전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음
-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타임워너가 18개월 동안 실시한 IPTV 시범서비스는 결과적으로 1% 미만의 고객만이 정식 서비스 가입을 결정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였음

#### □ 美, 인도와 하이테크 분야 VEU 도입 (2007.10)

- o 미국 상무부가 인도와의 하이테크 기술 교역 시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User, VEU)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VEU 제도를 통해 인도와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핵에너지 기술에 관한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과거 미국은 핵무기 실험을 감행한 인도에 대해 슈퍼컴퓨터, 반도체, EDA 프로그램과 같은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무역 제제를 여러 차례 가하기도 하는 등 역사적으로 하이테크 분야의 무역 관계가 결끄러웠음

- VEU제도는 민간 신용고객에 대한 적법한 무역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적법한 최종사용자에 대한 적법한 품목의 수출 시, 재수출 및 이전을 허가 없이 가능하게 하는 허가면제제도임
- 10.4(목)일자 Press Trust of India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장관 Carlos Gutierrez는 VEU 제도가 최종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은 교역업체와의 보다 간편하고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무역 거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언급함

#### □ 美, 디지털 TV 전환 후 아날로그 시청권 보장 (2007.9)

- 美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시청자들을 위해 디지털 방송 신호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송출하거나, 디지털 신호를 다운컨버트(downconvert) 하도록 하는 디지털 TV 전환 정책을 9.11(화) 확정하였음
- 다운컨버트 방식은 케이블 사업자가 가입자들에게 컨버터 박스를 제공하여 여기에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환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정책은 방송사와 케이블사업자 간의 절충안으로써 케이블 사업자들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 신호를 다 송출하도록 강제함. 아날로그 TV의 공중파 방송은 2009년 2월이면 송출이 중단됨
- FCC가 이번에 결정한 정책으로, 방송이 디지털로 모두 전환되더라도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돼,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확보됨

□ 美 MS社, 개방형문서 표준 포맷에 대한 ISO의 승인 획득 실패 (2007.9)

○ 美 MS社의 S/W인 '오피스오픈 XML'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결 결과, MS社는 53%의 지지를 받는데 그쳐 승인 기준인 66%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25% 미만에 그쳐야 하는 반대표도 26%를 기록하는 등 2가지 요건이 모두 미달된 관계로 결국 부결됨

- 이처럼 ISO 인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각국 정부가 방대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호환이 가능한 '개방형문서 표준 포맷'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이용 가능한 유일한 포맷은 美 IBM社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개발한 'ODF'로 알려짐

- 오늘날 MS社가 전 세계 디지털문서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MS社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규격화된 개방형문서 포맷이 마련되면 더 이상 특정 업체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 한편 최종 표결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MS社의 워낙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인해 반대자들마저 '오피스오픈 XML'의 승인을 점쳤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일각에서는 MS社의 전방위 로비활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

□ 실리콘 밸리, 여전히 세계 반도체 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 (2007.9)

- 美 시장 조사 기관인 아이서플라이(iSuppli)는 실리콘 벨리에 소재한 반도체 업체들 중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벨리는 여전히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그들의 본사거점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공개함
- 이어, 실리콘 벨리에 위치한 반도체 공급업체 56개社の 2006년 매출규모는 전년비 5.8% 증가해 68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이들 56개社 중에서 인텔을 제외하면 2006년 실리콘 벨리 반도체 업계는 367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한 셈이며, 이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라고 덧붙임
- 또한, 실리콘 벨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 세계 반도체 매출의 26.1%를 차지했고, 이러한 39개 업체들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
- 同 기관은 실리콘 벨리가 계속해서 반도체 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이 지역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을 꼽음
- Dale Ford 아이서플라이 부회장은 “실리콘 벨리에는 인텔, AMD, 엔비디아 등과 같은 컴퓨터 관련 업체들이 대다수 위치해 있지만, 이 지역에는 반도체 칩의 핵심 부문인 소비자 가전, 무선 통신 및 산업 부문 관련 업체들이 많다”고 언급
- 이어, “이러한 다양성이 실리콘 벨리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실리콘 벨리는 여전히 재능 있는 엔지니어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부언

- 그러나, “실리콘 벨리에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수가 다소 적게 포진되어 있고, 이곳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은 차량용 시장에 대한 진출이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우려함
- 한편, 同 기관은 대만 신주 과학 단지에 소재한 반도체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규모는 502억 달러로 실리콘 벨리 다음으로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각광받는 장소라고 소개
  - 그러나, 대만 반도체 산업은 주로 칩 생산에만 주력하는 파운드리 중심이라는 점과 더불어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실리콘 벨리와 달리 다양성이 결핍되어 있는 점이 대만 신주 과학 단지가 안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설명함
- 한편, 실리콘 벨리에 소재한 반도체 업체들 중 상당수는 실리콘 벨리에 본사를 두고 기타 생산라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됨
  - 이들 반도체 공급업체들은 경영진과 수석 엔지니어들은 실리콘 벨리에 두고 생산과 설계 부문은 해외나 미국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추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벨리는 여전히 반도체 신규업체들이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있어 주요 장소로 자리잡고 있음
  - 비록, 실제 생산은 한국, 대만, 일본에 있는 공장들에서 진행되지만, 많은 신규 메모리 기술들이 이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다고 아이서플라이는 강조함

## □ 대만 Acer, 미국의 Gateway 인수 예정 (2007.8)

○ Acer가 주 당 1달러 90 센트, 총 7억 1,000만 달러에 Gateway를 인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같은 인수 계획은 이미 두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올 연말 안에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

○ 중국 레노보 사에 대한 영향

- 그 동안 레노보 사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 왔던 Acer는 Gateway의 인수 시 세계 3대 PC 벤더로 발돋움하게 됨

- 2006년 Acer와 Gateway의 PC 출하량은 1,860만 대였으며, 레노보사의 출하량은 1,660 대였음

- 특히 Acer는 그 동안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도 다른 업체에 밀려 6위에 머물러 왔으나, Gateway의 인수를 계기로 미국 시장 확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시장 점유율의 변화

- 2007년 2/4분기 동안 미국 시장에서 Acer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하였으며, 출하량은 888,000 대로 5.2%의 점유율을 보임. Gateway는 965,000 대로 5.6%를 차지함

- Acer가 Gateway 인수 시 미국 시장에서 HP와 Dell에 이어 세 번째 벤더로 발돋움하게 됨
- o 한편 지난 8.27(월), Gateway 관계자는 전문가 사업부를 제3의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 PC 업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감소 추세 (2007.8)

- o 미시간 대학교의 National Quality Research Center에서 PC 업체에 대한 미국 소비자 만족도 지수(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PC 업체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조사는 매 년 실시되고 있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로서, PC 업체에 대한 조사는 80,000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가격, 문제, 구매 계획, 기대만큼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질의를 제시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전반적으로 PC 제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지난 2006년에 비해 3% 하락함. 만족도 순위는 Apple, HP, Dell, Compaq 순으로 나타남
- Apple은 지난해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전체 점수는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양호한 평가를 받지 못함. Apple의 점수가 하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지난 해 비즈니스 실적이 400% 증가한 것이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부담이 되어 제품의

신뢰성이 떨어졌거나, 1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나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Dell의 경우 XPS M1330의 출하 지연과 뉴욕 주 검찰청이 Dell을 기소하기로 한 결정이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신뢰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Compaq은 HP에 인수되기 이전에 이미 문제가 많은 브랜드였다는 선입견이 깊어, 최근 Compaq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Direct2Dell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HP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방송 주파수를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기기, FCC 테스트 통과 못 해 (2007.8)

- o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00 MHz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주파수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기기에 대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white space를 정확히 감지하지 못하며 간섭을 초래할 수 있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함
- 이 초고속 인터넷 기기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Dell, HP, 인텔, EarthLink, 필립스 북미 사업부 등이 연합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방송 주파수 중 소위 white space로 불리는 미사용 주파수 대역을 이용함

- 이 기술 연합은 FCC로부터의 협조를 얻어 테스트에서 발견된 결함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FCC 의장 Kevin Martin 역시 미사용 방송 주파수를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방송 사업자들은 간섭을 유발하거나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음
- FCC는 10월 내에 white space를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기기를 승인하고 관련 규칙을 채택한 후, 12월부터 이러한 기기의 인증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그러나 700 MHz 경매가 실시 이전에는 이러한 기기는 판매되지 않을 예정임

#### □ Dell, 중동 지역 디스트리뷰터 계약 (2007.8)

- o Dell 컴퓨터가 중동 시장에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고객에 대한 PC 및 스토리지 시스템 판매를 강화하기 위하여 컴포넌트 도매 업체로 유명한 Asbis를 디스트리뷰터로 선정함
- Asbis는 OptiPlex 데스크톱, Latitude 노트북, 서버 및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Dell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Dell이 중소 기업 전략 제품으로 내놓은 신제품 Vostro 라인도 공급할 예정임
- Asbis는 디스트리뷰터 계약에 따라 바레인, 오만, 카타르, UAE, 예

멘에서 Dell의 1차적인 전용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을 하게 됨

- Dell Middle East의 부장 Michael Collins는 “이번 계약으로 Dell은 Asbis의 광범위한 리셀러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동의 중소기업 시장에 대한 진출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함

## VII. 일반 현황

1

국가 개요

### □ 국가개요

- 국명 :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 수도 : 워싱턴 D.C(Washington, D.C)
- 면적 : 9,631,418만km<sup>2</sup> (한반도의 약 42배)
- 인구 : 약 2억9,900만명 ('06)
- 주민구성 : 백인 81.7%, 흑인 12.9%, 아시아태평양계 4.2%, 기타 2.2%('03)
- 주요도시 : 워싱턴 D.C, 뉴욕, 시애틀, 시카고, 로스앤젤로스,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휴스턴 등
- 종교 : 신교(56%), 로마카톨릭(28%), 유대교(2%), 기타
- 언어 : 영어
- 국체 : 연방공화제

##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 국가원수 : George W. Bush 대통령( 2001 취임)
- 의회 : 양원제 (상원 100석, 하원 435석)
- 정당 : 공화당, 민주당
- 건국일 : 1776.7.4

2

## 경제 지표

### □ 경제지표(2006)

- GDP : US\$ 13 조 2,446 억(2006 년, IMF)
- GDP실질성장률 : 3.3%(전년대비, IMF)
- 1인당 GDP : US\$ 44,190(2006 년)
- 화폐단위 : US dollar (USD)
- 실업률 : 4.5%(2007.4 월, 미 노동부 통계국)
- 물가상승률 : 3.2%(2006 년, 미 노동부 통계국)
- 미국 교역규모
  - 수출: US\$ 10,371 억(미국 수출);
  - 수입: US\$ 18,551 억(수입)
  - 무역적자 US\$ 8,180 억
- 주요 교역품목(2006)
  - 수출: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항공기, 농산물

-수입: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원유, 석유류

### □ 한-미 관계

#### ○ 외교관계 수립 :

- 수교일: 1949.3.20
- 주한 미국 대사관 개설: 1949.4.19
- 주미 한국 공관 개설: 1949.3.25

#### ○ 체결협정

- 한-미 FTA 협상 타결 (2007.4.1) 및 협정문 공식 서명(2007.6.30)
- 사회보장협정(2000.3)
- 한.미 항공 자유화 협정('98.6.9)
-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97.5.23)
- 전시예비탄약 현대화협정('87.5)
- 스포츠교류협정('83.1)
- 이중과세방지협정('79.10)
-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72.12)
- SOFA(행정협정)('66.7 →'91.2개정 →'01.1 개정)
- 경제기술원조협정('61.2)
- 투자보장협정('60.2)
- 항공운수협정('57.4)
-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56.11)

- 원자력협정(55.7)
- 상호방위조약(54.11)

## □ 교역 현황(2006)

### ○ 교역규모

- US\$ 45,830 백만 (우리나라 수출),
- US\$ 32,455 백만(수입)

### ○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 승용차, 무선통신장비, 반도체, 철강, 의류, 자동차 부품, 모니터, 컬러 TV, 컴퓨터 등
- 우리나라 수입 : 전자. 전기, 농산물, 기계류 등

### ○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유치: US\$ 1,701 백만  
(2006년 산업자원부 신고 기준)

### ○ 교 민

- 208만 7천명(2005 년 기준,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통계)